

RM 2018-2-800

# 2017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및 UCC 수상집

Collection of CAMPUS Asia Korea-Japan-China Essay and UCC Contest Prize Winners 2017



• • •  
CONTENTS

발간사

007

## 체험수기

---



### 최우수상

- “누가 역사를 정의하는가? ‘분쟁해결 및 사회변혁’ 하계집중프로그램 수기” 012  
심지수\_고려대학교 정경대학
- Korea Station in the Journey of Life 017  
Chen Chuke\_북경대학교

# 2017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및 UCC 수상집

Collection of CAMPUS Asia Korea-Japan-China Essay and UCC Contest Prize Winners 2017



## 우수상

- 대학원을 향한 힘찬 발걸음 024  
김유빈\_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 상하이에서의 한 걸음 028  
정병철\_부산대학교 에너지환경사업단
- “6개월간의 일본 - 배움의 연속,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동아시아 유스코므네 실현의 문” 034  
이호준\_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길림대에서의 ‘도움닫기’ 040  
박경춘\_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 The First Step 044  
권성진\_한국해양대학교

● ● ●  
**CONTENTS**



## 장려상

- 중원에서 답을 얻다 050  
정상락\_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큐슈 가을 055  
로목단\_부산대학교 건축대학
- 북경, 그리고 세계와 나를 경험하다 059  
김민수\_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From Asia to the World 063  
Cao Hui\_고베대학교
- Final report 066  
Zhang Xin\_북경대학교
- 90일간의 동경공업대학 방문연구 069  
김재훈\_KAIST
- 지도에,마음을 놓다 073  
손수민\_동서대학교

# 2017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및 UCC 수상집

Collection of CAMPUS Asia Korea-Japan-China Essay and UCC Contest Prize Winners 2017

- 더 넓게, 더 많이 077  
박완진\_성균관대학교 수자원전문대학원
- 꿈을 찾는 여행 085  
Zhang Yechen\_광둥외어외무대학교
- “Knowledge” and “Respect” 088  
Koga Saori\_와세다대학교
- 북경에 사는 김선생님 이야기 091  
김민지\_서울교육대학교
- 중국 베이징에서의 문화 체험 095  
권단일\_한국예술종합학교
- ‘오카야마’에서 ‘나’를 찾다. 098  
곽지현\_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 다시금 한번 되돌아보다 102  
배주현\_부산대학교 건축대학

● ● ●  
**CONTENTS**

## UCC

---



### 최우수상

- Why are you hesitating?

108

이승재, 이송이, 이현국\_성균관대학교 수자원전문대학원



### 우수상

- Graceful Life in Korea

110

Mitsunaga Kaito, Wu Xueyuan, Zhou Yarong, Igawa Susumu\_나가사키대학교, 산동대학교



### 장려상

- See you, Korea

112

Li Wanjing\_고베대학교



# 발간사

Collection of CAMPUS Asia Korea-Japan-China Essay and UCC Contest Prize Winners 2017

CAMPUS Asia(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한일중 사업은 한일중 대학(원)생 교류 및 3국 대학간 공동 복수학위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아시아 대학간 글로벌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학생 Cross-Border Mobility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한일중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는 학술, 언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며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와 함께 5년 간의 CAMPUS Asia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그 성과에 힘입어 2016년 신규 사업단 9개를 선발하여 총 17개 사업단, 40개 대학과 함께 본 사업으로 확장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국제적인 학생교류 사업으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2017 CAMPUS 한일중 사업 참가자 체험수기 및 UCC 수상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7년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참가자 체험수기 및 UCC 공모전은 동 사업학생이 경험한 우수한 공동 교육과정 및 타문화 이해에서 비롯된 경험을 나누고 확산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정된 29명의 학생(체험수기 부문 21명, UCC 부문 3팀)의 열정과 도전이 CAMPUS Asia 본 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컨소시엄 대학(원)과 참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되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CAMPUS Asia 사업이 한일중 3국을 넘어 아시아로의 확대를 모색하고 본 사업 운영기간 동안 공동교육과정, 공동 복수학위 취득, 인턴십을 확대하여 아시아 대표 Cross-Border Mobility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장호성**





2017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및 UCC 수상집

Collection of CAMPUS Asia Korea-Japan-China Essay and UCC Contest Prize Winners 2017

# 체험수기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2017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및 UCC 수상집

**최우수**

Collection of CAMPUS Asia Korea·Japan·China  
Essay and UCC Contest Prize Winners 2017

# 누가 역사를 정의하는가?

## - '분쟁해결 및 사회번영' 하계집중프로그램 수기



심지수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사업단 : 고려대 - 와세다대 - 북경대)

동아시아의 눈으로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난 세기는 말 그대로 '격동'의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의해 정리되어 마침내 역사가 되었다.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서로 다투었고, 대내외적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수없이 많은 각자의 고통을 극복해내야 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지역은 그동안의 반목을 넘어서야 하는, 화해와 평화구축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그중 하나는 바로 역사일 것이다. 총체적인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에서의 화해가 선행됨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해를 이뤄낼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 것일까? 역사를 정의하는 자는 누구일까?

이 질문에 답을 내리고자 할 때, 지금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저마다 역사를 받아들여왔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우리의 역사 수용은 서술자에 달려 있었다. 역사적 사건은 단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일 뿐이지만, 사람에 의해 서술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떠한 경험이나 의견, 주관적 개입이 역사적 서술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설령 서술자가 주관적인 언술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역사 텍스트의 주관성은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서술자는 무한대에 가까운 역사적 정보를 제한된 분량 속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취사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다분히 주관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보면, 국가 자체가 역사적 주관성을 이용하는 주도 세력이 될 수도 있다. 자국 국민에게 역사 교육을 실시하는 각 나라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텍스트 속에서 전쟁 영웅들을 자세히 소개하거나 이전의 적들을 강조하기까지도 함으로써 국민적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2017년 8월,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일주일간 진행된 이번 하계 집중 프로그램은 역사가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라지며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전후(1945년 8월) 동아시아 지역의 상황과 이때 발생한 여러 분쟁들에 집중해보면서 갈등 해결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인 '화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과거의 사건이 대중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마침내 하나로 역사로 완성되는 과정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리 동아시아 각국의 학생

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국가적 배경을 한데 모아, 역사에 관한 깊은 고찰을 수행하였다. 역사 자체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한 평화구축의 길까지 확장된 것이었다. 여러 가지 강의와 현장 체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협동 교과서 프로젝트는 과거의 사건들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함께 한 자리에서 다루어보려는 우리의 노력이 한껏 드러난 결과물이었다.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역사란 무엇인지,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후에는 2박 3일을 할애하여 나가사키로 현장 체험을 떠났다. 나가사키는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의 현장이었던 군함도(하시마 섬)와 2차 대전을 종식시킨 원자폭탄 투하 지점이 위치한 곳이다. 나가사키에서 도쿄로 돌아온 다음에는 그동안 한일중 3국 간에 시도되었던 '과거에 대한 화해' 작업을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에 출간된 3국 합동 역사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별로 직접 협동 교과서를 제작해보며 서로 다른 역사적 관점을 조화시키고 서로 간의 화해를 조성하는 작업에 정점을 찍었다.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데는 참여자의 국적 구성이 한 몫 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은 한국, 일본, 중국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이 3국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서 온 와세다 유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더욱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에는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신도 있었으며 심지어 2차 대전 당시 동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모르고 있는 볼리비아 친구도 있었다. 특히 대만의 경우는 2차 대전기에 한국처럼 일본의 점거 아래 있었으며 이후 발생한 국-공 갈등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대만 친구들의 참여는 당대 역사를 더욱 생생적으로 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실 무엇보다도 나를 포함한 한국 학생들의 관심

을 끌었던 것은 군함도 견학이었다. 공교롭게도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영화 <군함도>가 개봉되기도 했다(나는 배경지식을 쌓자는 취지에서 이 영화를 보고 일본에 왔다). 우리는 프로그램 3일차에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나가사키로 이동한 뒤 군함도를 견학하였다(군함도는 나가사키 항에서 배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군함도로 가는 선박 내에서는 홍보영상이 상영되었는데, 메이지 시대 발굴을 시작하여 일본의 산업화를 이끌고 종전 이후 폐광되기까지 군함도의 역사와 그곳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의 생활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제국주의 시기의 내용은 최소화되어 있었다. 군함도에 도착한 뒤에는 현장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섬을 답사했는데, 대부분의 구간이 민간인에게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깊은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섬의 외곽에서 중앙의 폐광과 폐아파트 등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현지 가이드도 그렇고, 홍보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시기에 이곳에서 자행된 강제 노역에 대해 한 마디도 설명해주지 않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펍 슬펐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군함도 견학을 했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를 고려한 결과일 텐데, 이 주제로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못한 것 같아서 못내 아쉬웠다.

그 뒤로는 2차 대전 당시 원자폭탄 투하에 관한 견학이 진행되었다. 나가사키 원폭 박물관을 방문한 데 이어 나가사키 시내 곳곳에 자리한 원폭 관련 현장을 답사했다. 다음날에는 원폭 생존자를 초청하여 증언을 듣기도 했다. 나가사키에서는 원폭으로 인해 형체가 마모된 성당이나 학교의 일부분을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 덕분에 우리들은 모두 1945년 8월 나가사키에서 발생했던 절박하고도 참혹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원폭 생존자 분을 포함한 나가사키 사람들은 더 이상 미국에 적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전쟁과 핵무기의 참상을 알리고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었다. 마침 프로그램이 진행된 시점이 히로시마

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8월 6일/9일과 겹쳤기 때문에 나가사키 전역을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TV에서 생중계되는 추모 행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저녁에는 나가사키 대학교에서 대표로 학생 3명과 교수님 한 분이 프로그램에 초청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모두가 원형으로 둘러앉아 열띤 토론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평화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이고도 철학적인 논제로부터 시작하여 ‘핵무기의 파괴성’이나 ‘나가사키 시민들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같은 현실적인 논제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나가사키에서 보고 듣고 나눈 것들은 도쿄로 돌아와서 평화와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역사를 함께 정리하는 활동에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던, 서로 다른 의견을 조화시키며 통합해 가는 협동 교과서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 그리고 일본인과 대만인 1명으로 구성된 우리 조는 ‘모두의 이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모든 이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첫째, 교과서에는 조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서술만 수록한다. 둘째, 간단명료한 디자인과 연표 요약을 도입하여 모든 사람(어린이들까지도) 교과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조별 활동을 하는 동안 의견 조율이 필요한 지점이 몇 가지 나타났다. 우선 교과서의 예상 독자를 동아시아인에게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협동 교과서를 만드는 동기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부분적인 지역을 대표하며 해당 지역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교과서들은 이미 아주 많이 존재하므로, 우리가 예상 독자를 한 지역 사람들로 제한한다면 그것은 이

미 나와 있는 것들과 똑같은 교과서들을 하나 더 만드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지금의 교과서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들도 유럽이나 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의 사건들까지 모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까지 합쳐 놓으면 언젠가는 이 방식으로 전 세계 합동 교과서 제작도 가능할 것이므로, 중간 과정 격인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열띤 논의 끝에 후자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다음으로는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포함할 것인가, 서술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있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아시아 교과서로서의 고유한 결과물을 창출해내기 위하여 우리 고유의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과서에 일체의 주관적 해석을 삭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본인의 생각을 ‘창조’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내가 입장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나는 협동 교과서 제작의 근본 목표를 생각해보았다. 어떤 입장에 서는 것이 각국의 화해와 더 나은 역사 이해를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나도 결국 모든 주관적 요소를 삭제하는 데 동의하게 되었다. 기존의 교과서들이 대부분 주관적 해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다.

일체의 주관적 요소를 삭제하자는 기조는 협동 교과서 본문 전체에서 유지되었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 수치를 적어야 하는 상황이 아주 많았는데 사료에 따라 같은 사건에 대한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 물론 차이가 적은 수치들은 두 가지 모두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대만 2.28 사건의 경우 희생자가 수천 명이라는 사료와 10만 명 이상이라는 사료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수치의 중립성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방식대로 “수천 명에서 10만 명의 사람들

이 회생되었다”고 쓰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였다. 결국 우리는 이런 경우에 한하여 의도적으로 ‘Many(많은)’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결정했다. 이렇게 하면 서술의 정확성을 포기하게 되지만, 여전히 독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관점에 따라 자유롭게 수치를 해석할 여지는 마련되는 것으로, 텍스트의 수용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다.

우리는 조별로 제작한 협동 교과서를 소개하는 그룹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뿐 아니라 신문 기자 및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와세다 대학의 일반 학생들에게도 공개되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발표를 마친 후에는 마이니치신문 기자와 이번 단기 프로그램 및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모든 주관적 서술과 해석을 삭제한 우리 조의 교과서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나는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교과서 텍스트를 구성하려 노력한 우리 조의 고민을 청중 앞에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또한 우리 조와 반대로 거의 모든 문장을 주관적 서술로 작성한 조가 있었는데, 우리 조의 교과서와 서로 판이하게 다른 형식을 보여줌으로써 협동 교과서 제작 방식의 다양성을 제시하는 데 일조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는 와세다 학생이 찾아와서 우리 조의 입장이 흥미롭다면서 나의 최종 에세이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일은 한국에서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꽤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서로의 가치관과 관점을 배려하는 우리 모두의 태도였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서로의 나라에 대한 지식 수준은 심각했다. 예를 들면 장개석 총통을 중국 보통화로는 Jiang Jieshi라고 하고, 대만에서는 Chiang Kai-shek이라고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듣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 종일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배우면서 그 격차를 좁혀

나갔다. 나는 일제의 조선 국권 침탈을 한국에서 경술국치(庚戌國恥)라 부른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직접 화이트보드에 한자로 쓰면서 알려주니 대부분 한자 문화권 사람들이라 그런지 다들 곧바로 이해하는 것이 신기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일한합병(日韓合併)이라는 용어만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세다 교수님들도 경술국치라는 표현은 처음 접하는 것이었다.

격차가 점점 좁아지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데까지 서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역사 시간에 난징 대학살에 대해 배우느냐’, ‘한국이 사드를 중국 방향으로 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와 같은, 평소 같았으면 꺼내지도 못할 민감한 주제들을 놓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연습을 했다. “Above all, I love China, I love Chinese people(우선 나는 중국을 좋아하고, 중국인도 좋아하는데)” 라든지, “According to our media(우리나라 매체에서 그러는데)” 같은 말을 사용하는 식이었다. 본래 어떤 세션에서는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주장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교수님들이 우리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친구들은 이미 서로를 너무 잘 배려하고 있다”고 결론지으시면서 이 대목이 생략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말미에는 사뭇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나는 이것이 배려를 향한 우리들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 교과서를 만드는 동안 한일중 3국이 아닌 나라의 내용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논의하게 되었는데, 우리 조에서 유일하게 대만인이었던 친구가 “한일중 내용 넣는 교과서인데 대만 얘기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며 망설였지만 우리 모두가 대만을 중요하게 다루기로 합의하였고, 대만에 관한 내용은 다른 모든 나라의 내용과 정확히 똑같은 분량으로 실리게 되었다. 이 친구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평소에 대만을 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감동에 겨워했다.

나는 이번 프로그램 전체가 나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활동이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각 세션들을 거치며 우리들은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끊임 없이 경청했다. 이 대화들은 나의 마음에 정말 크게 다가왔고 결국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꿔주었다. 말 그대로 일련의 ‘조화’ 과정이었다.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동안, 나는 모든 친구들이 특정 주제에서 저마다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느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군함도를 보며 슬퍼했던 내 감정처럼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나라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며 어떤 내용을 배우지 않는지 이야기했다. 서로가 서로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점을 공유했다. 마침내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협동 교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와 공유된 경험을 종이에 융합해내는 멋진 통로가 되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누가 역사를 정의하는가? 나만의 결론을 내리자면, 역사를 정의하는 자는 역사의 수용자 그 자신이다. 역사가 보존되면 곧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승된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 주체적인 수용자가 되어 역사 구성의 현장에 과감하게 발자취를 남겨야 한다. 진정으로 역사를 정의하고 보존하며 계승하는 자는 역사 교과서의 저자도, 역사를 교육시키는 국가도 아니다. 바로 우리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를 보존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역사의 수용자이자 동시에 ‘역사 재창조의 책임을 지닌 자’로서 각자가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 기초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 합리적 기초는 어느 한 의견에 고착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공유하는 과

정에서 다각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적극적 융합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 주된 사관(史觀)에 세뇌되기보다는 각자의 고유한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정체성이 함께 모여 만드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해낸 일은, 새 역사를 창조할 개척자 세대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작업이었다. 이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Korea Station in the Journey of Life

Chen Chuke 북경대학교  
(사업단 : 서울대 - 동경대 - 북경대)



It is the first time in my life to stay in a foreign country for more than one month. 100 days before, I came here with strong curiosity, great anticipation and two heavy suitcases filled with clothes; 20 days later, I'm going to leave Seoul with the same two heavy suitcases, which will have been filled with fond memories and deep thinking.

## 1. A visitor from China

I have never been to Korea before so the first mission for me is to find out what the country is like. Thanks to the program, we were able to travel around South Korea including Seoul, Busan and Gyeongju. What's more, we will have a chance to visit Jeju Island two weeks later. Apart from these organizational activities, I also spent many weekends in the museums, palaces and markets, where I got to know Korean people's living and thinking styl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Personally, I have a strong interest in history, so that has become my main focus wherever I

go. I was impressed by the politics and culture of ancient Silla era shown in Daereungwon and Pulguksa, surprised at the similarities between Joseon Dynasty's Gyeongbokgung and Chinese Forbidden City, glad to know South Korean way of telling the story of Korean War in Incheon, and touched by the consistent struggle for a solution to comfort women issue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All of these have worked together to construct today's Korea, as well as the historical memories of today's Korean people.

Standing on the streets of Gangnam, I can hardly distinguish Seoul from Beijing without those Korean characters. The two capitals share similar rapid pace of life, high-rise buildings, as well as a large number of office workers who are ambitious and hard-working, but confused and anxious at the same time. Each time those thoughts occur to me, I feel that I myself am more than a tourist or outsider. At the very beginning, I was a newcomer who considered Korea as a myth. After living here for more than three months, I

believe some kind of connection has been built between me and the country, which I would like to call “understanding” and “familiarity”.

## 2. A student in SNU

There was a dialogue between us and a Korean aunt when we planned to rent Korean hanbok in a shop:

- “Where do you guys study?”
- “Seoul National University.”
- “Wow, everyone that is admitted to SNU is a genius!”

Although I’m not a formal student in pursuit of a degree, her evaluation was enough to make me proud of being an exchange student here. If I had the chance to meet her again, I would tell her that the students, professors and classes in SNU are truly excellent.

I have been really fascinated by the three courses I selected, which are “Seminar in North Korea”, “Changing World Order and Korea” and “Current Issues in Chinese Society”. While applying for the program, I wrote in my statement of purpose that “I hope to ge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Korean Peninsula and more importantly, how Korean government, scholars and citizens view their country and other countries”, “I believe that it is far more important than any time in history for today’s China and South Korea to understand each other’s hardship and respect the other’s standpoint”. Now since the semester is coming to an end, I can confidently say that the three knowledgeable courses have

helped me a lot in fulfilling my ambition, at least from three aspects.

Firstly, what makes North Korea develop into its current situation? Instead of strong criticism and prejudice, the reading materials provided by Professor Jean lead us to treat the country historically and objectively. Then we are able to understand many important questions such as why a hereditary system could be established in a socialist country, how did such a small country survive in the disadvanta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what do nuclear weapons mean to North Korea. The luckiest thing was that a North Korean defector was invited to our last class and gave a special lecture. When I asked him about the popular attitudes of South Korean people towards defectors and how he adapted himself to South Korean society, he kindly shared his experiences and hardship with us and expressed his wish for unification.

Secondly, how has Korea changed or been changed by the regional or international order? In his weekly speech, Professor Sheen told of many details on decision-making, leadership succession and diplomatic interaction and inspired us to learn from history to get a more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Some events concerning China, like the rise of Manchuria,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Korean war, which used to be put in the context of Chinese history, are now interpreted again under the framework of regional power transition and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Peninsula.

Thirdly, what is Korean perspective on China? Professor Jeong is an expert on Chinese studies and has a good command of the combination of theory and reality. Some phenomena, which I took for granted and paid little attention to before, actually have fundamental influence on Chinese regime legitimacy and state-society relations. Furthermore, Professor offered many opportunities to Chinese students to share our thoughts and express our opinions.

Apart from professors, I also learned a lot from my classmates. Every week, several groups made presentations related to the given topic and put forward some discussion questions. In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we have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hat enables us to listen to Indian students' attitudes towards nuclear weapon issues and security dilemma, German students' views on historical disputes, and of course, Korean students' cognition of the challenges they are faced with. During my several months' stay in Korea, the North Korean has kept developing and testing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missiles, which greatly aggravated the tension in Northeast Asian area. As students major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we have had many discussions on the intention of North Korea, the interests of great power, as well as the role of South Korea and tried to figure out a possible solution.

Moreover, every two weeks, all the members of Campus-Asia Program in SNU would gather together to choose a topic they are interested in

about China, Japan and Korea and conduct in-depth discussion. Up to now, we have covered the three countries' aging society, environmental pollution, idol culture and funeral customs. Though it has never been officially announced, I believe that the ultimate concern behind those discussions is to find out if and how we can build an East-Asian community by looking into and comparing the current social reality.

All in all, it is my pleasure to spend one semester in GSIS, which is both a continuation and an extension of my five years'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Peking University. It usually takes me ten minutes to walk from my dormitory to GSIS building, and it will take my lifetime to cherish everything I have experienced in that college.

### 3. A young adult in the world

The initial motivation for my applying for the program was the both familiar and unfamiliar images of our two neighboring countries in my mind. A famous ancient Chinese poet once said that "Everything must be only done then been understood profoundly" (纸上得来终觉浅, 绝知此事要躬行。——陆游《冬夜读书示子聿》). So I came here to experience and by now, I have benefited a lot from the program. However, enjoying myself should not be the terminus of the journey. Besides a taker, I also ought to become a giver. Also, I want to do something as a gift to this journey.

I will always remember the talk between two Chinese students (including me) and two Korean

students taking place on the evening of November 24th in the lobby of a hotel in Gyeongju. That was the first time we sat down to carefully think abou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program since I came to Korea. Recently, I have begun to discuss with other members of the program about what we can do after going back to China and during our stay in Japan in the following semester.

First of all, the relationship among the members of Campus Asia Program need to be further consolidated as a team. Of the eleven participants in SNU this semester, we have six of them from China, two from Japan and the other three from Korea. All the Chinese students live in the student dormitory while none of the Korean students lives on campus. The results are that on one hand, Chinese students can meet almost everyday with each other in the cafeteria, gym or study room; but on the other hand, it is not easy to see other students unless we are in the same class or arranged to meet at the round table. For the Korean students, they have formed their own social circles in SNU and there is no special reason for them to pay especial attention to the students of the program.

Then how to strengthen the internal relations? In fact, GSIS has devoted much effort by organizing tours and round table discussions. However, as far as I'm concerned, in order to cultivate team spirit, some tasks should be assigned to the students. For instance, the local university can ask them to operate an account on Facebook or Twitter by themselves and release

some photos and articles about their daily life from time to time. This will not only encourage them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more often, but also make the program known to more people. If someone wants to know more about the program, he/she can chat online with our members. Only when the program gains wide public attention will the students feel honored to be chosen as members and responsible to make it better.

Besides, if possible, an annual Campus Asia Forum can be held by the three countries in turn, which invites several student representatives and distinguished professors. Every year, the committee puts forward a theme related to the trilateral relations. All the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make a presentation and hand in a paper, which can be edited into a book after the forum and handed in to the governments or relevant academic institutes as a reference. As direct experiencers who live in each of the three countries for at least four months, I believe we have a say in how to deal with the trilateral relations in a more practical and effective way.

### Afterword

At last, I would like to tell three stories that happened to myself.

In early September, my friends and I went to Gyeongbokgung wearing Korean hanbok. As soon as we walked past the gate, two tourists with European faces came to us and asked if they could take a photo with us together. After they

left, a touring party from Indonesia came for the same request. They all mistook us as Korean girls due to our similar appearances, and especially that we were wearing Korean traditional costume made it almost impossible for people from other regions to differentiate between us and local girls.

Nearly two months later, on the last day of October, I spent my 23<sup>rd</sup> birthday in Seoul. I got up early that morning and went to climb Gwanak Mountain by myself. On the half way, I got lost and an elderly couple showed up. They could speak neither Chinese nor English and I was very poor at Korean. But finally, they showed me the direction and accompanied me to the top. They gave me a packet of nuts and I shared my grapes with them. By the time we said goodbye, they kindly wished me a happy birthday in Korean language.

Two weeks after that, I went shopping in a supermarket near SNU. When I told the cashier that I want two bags in short Korean phrases, she immediately answered me in Chinese and enthusiastically helped me put everything well. She could only speak a little Chinese but still said “zaijian” (goodbye) and “manzou” (take care) when I left. Her smile has left a profound impression on my mind which I would never forget.

Yes, at many moments like that, sometimes I would feel that I have never gone abroad, and sometimes differences are really not a big deal.



2017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및 UCC 수상집

우수

Collection of CAMPUS Asia Korea·Japan·China  
Essay and UCC Contest Prize Winners 2017

# 대학원을 향한 힘찬 발걸음



김유빈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사업단 : 성균관대 - 오카야마다 - 지린대)

2년 전, 나는 평범한 삶을 꿈꾸는 대학생이었다. 안정적인 수입과 '칼퇴'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꿈꾸던 때가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취업에 성공하는 게 미덕이라고 여기면서, 적성에 맞지도 않는 경영학과 수업을 꾸역꾸역 듣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 내가 돌연 대학원에 가겠다는 선언을 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건 내가 인생 수업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동아시아의 한문학'이라는 과목이었다. 말 그대로, 일본과 중국의 한문학 유산에 대해 살펴보는 수업이었다. 하지만, 수업 자체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동아시아의 한문학' 중에 테마를 정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진행한 후에 직접 수업을 해 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무시무시한 시험 방식이었지만, 역으로 나는 적성을 찾게 되었다. 내가 맡은 부분은 '(조선)통신사 개론'이었다. 통신사란 나에게 있어서 몇 번 스치듯 들어본 용어에 지나지 않았고, 인터넷 검색 방식의 과제에 익숙해 있던 나는 도저히 1시간이라는 수업 시간을 채울만한 분량을 만들 수 없었다. 발표 날이 다가오면서 도서관에서 사는 날이 많아졌다. 정말 책을 산처럼 쌓아놓고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모르는 용어가 많아서 주석도 참 많이 달았었다. 나의 기우였던 걸까, 염려와 달리 발표는 대성공이었다. 결과가 좋아서 물론 무엇보다도 기뻐지만, 그

과정 자체가 내게는 괴로운 기억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발굴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짜릿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부터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특히, 그 당시 나를 관통했던 건 '통신사는 한일 교류 사절인데, 일본어로 된 자료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무턱대고 일본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일본어 책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다니다보니, 1년이나 다녔다. 일본어 능력시험(JLPT) 1급도 뚫았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시험 일본어로는 배울 수 없는 게 많았다. 특히, 일본어가 깨끗하게 들리지 않는 게 가장 답답했다. 아무리 공부해도 청해 점수는 거기서 거기였다. 일본에 직접 가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때부터 일본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역지로 질질 끌여오던 경영학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내가 교환학생으로 일본을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였다. 교환학생 모집은 보통 한 학기 정도 먼저 시작한다. 내가 가고 싶은 시기에는 이미 모든 모집이 끝나버렸고, 4학년 2학기에 지원을 하자니, 마지막 학기에는 파견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한 학기만 휴학을 하고 워킹 홀리데이라도 다녀오려고



했다. 그런 차에 캠퍼스 아시아로 오카야마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공고를 발견했다. 파견하기 직전에 모집을 해서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매달 들어오는 장학금도 적지 않았다. 물론, 이왕 가는 거라면 통신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있는 곳이 좋겠지만, 지금 찬물 더운물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휴학을 하지 않고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렇게 오카야마행을 선택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원 없이 공부하고 원 없이 놀았던 시간이었다. 보통 교환학생을 가면 그 나라 말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수업이 어려워져서, 많이들 수업을 듣지 않거나(학점을 적게 듣거나)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하지만, 나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다. 졸업이 코앞이었다. 추가학기를 들어서 한 학기만큼의 등록금을 손 벌릴 수도 없었다. 15학점을 꼭꼭 채웠다. 성적은 나의 욕심이기도 했지만, 성적이 나쁘다고 일본에서 재수강할 수도 없었다. 일본어가 빨리 늘었으면 해서, 일주일에 일본어 수업을 10시간 이상 들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전공 수업 시간에는 정말 이를 악물었다. 특히, 일본의 한문학은 한문 문구를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읽는데, 내가 지금까지 배워 온 송독처럼 현토를 붙여서 읽으며 내려가는 게 아니었다. 읽다가 위로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읽다가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한문 문구를 해석하는 방식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해석 순으로 글을 읽는 것이었다. 한문이 일본어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방식이었다. 문구를 끊는 데만 해도 두세 달은 죽히 걸린 것 같다. 일본어 자료를 한국어로 해석해서 정리하고, 다시 일본어로 써 보면서 겨우 수업에 익숙해졌었다. 전공을 많이 놓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지, 전공이 많았다면 아마 나도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른다.

가장 열심이었던 건, 일본어 초서를 읽는 수업이었다. 아직 한문 초서도 읽을 줄 모르는데, 일본어 초서는

더더욱 낯설었다. 심지어 선생님이 해석본을 주셔도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일본 내 지역의 옛 지명이 많았던 탓이다. 수업에 외국인도 나 한 명뿐이라서 배려를 기대할 수도 없었다. 따라가든지 아니면 가장 끝으로 뒤처지든지 했던 아등바등한 수업이었다. 하지만 초서도 읽다보면 익숙해지는 데가 있었다.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과제가 전부 박물관에 가서 고문서를 보다가 오는 것이었다. 이제는 최소한 그 고문서가 쓰인 날짜 정도는 볼 수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수인도 구별할 수 있다. 성균관대 학부 수업에서는 일본어 초서를 배우지 않는다. 심지어 국내에서 조차 배울 수 있는 곳은 한 곳 정도이다. 그래서인지 힘들어도 듣기 잘했다고 위안을 삼고 있다. 또한, 나중에 대학원에 가면, 연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함께 하고 있다.

일본에 있으면서 자주 했던 말은 “이번이 아니면 언제 해 보겠어/가 보겠어.”였던 것 같다. 정말 일본 곳곳을 누비고 다니고, 특이한 음식도 많이 먹어 봤다. 그 중에서도 내가 아마 평생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아주 오래 전부터 기획해 온 ‘통신사 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통신사는 부산에서 출발해 쓰시마 섬, 후쿠오카를 지나 세토내해를 따라 해로(海路)로 오사카(교토)까지 온 후에 육로를 따라 에도, 그리고 닛코까지도 방문한다. 그 길을 따라가며 통신사가 보고 온 것들을 나도 보고 싶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건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남긴 시조와 문구에 지나지 않지만, 그 글이 담고 있는 진짜 풍경은 어떤 것일까 하는 강렬한 호기심이 일었다. 배낭 하나에 티셔츠 두 벌, 바지 한 벌을 챙겨서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신나게 돌아다녔다. 진정한 배낭여행이었다. 물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한계가 있어서 꼼꼼히, 완벽하게 모든 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조선통신사 문화사업 홈페이지를 참조로 하여, 그곳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통신사 문화재, 유적지

에 들러보았다.

여행이야기를 하는 데 앞서, 질문을 하나 해 보고 싶다. 만약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온다고 한다면, 어디에 데려갈 것인가? 머릿속에 대략 떠오르는 서울의 랜드마크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곳에 데려갈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그 이유는 그곳이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곳을 통해 그 친구가 한국을 보기를,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곳의 공통점은 한국을 대표할 만큼 아름답거나 인상적이거나 상징적이다.

이 질문을 그대로 통신사에 적용시켜 보고 싶다. 통신사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교 사절단이다. 앞서 말했던 루트를 따라 각 번을 거치며 에도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그들을 접대하는 입장의 번주들은 통신사절을 어디에 데려갔을까? 어디에 머물게 했을까? 예상대로 그 번에서 가장 좋은 숙소, 가장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에 데려갔다. 그리고 번주들은 통신사들로부터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다는 감상이 담긴 시조를 받았다. 그 시조는 편액이 되어, 또는 그 자체로 소장되어 여전히 그 풍경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 가장 아름다운 곳의 모습을 그들처럼 마주하고 싶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시즈오카에 있는 세이켄지(清見寺)였다. 내가 간 날은 2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그만큼 날씨가 포근했었다. 오키즈 역에서 내려서 철길을 따라 꽤 오래 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길조차 한 장, 한 장 그림이 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철길 옆에 집들이 모여 있었는데, 일본 옛날 집들이 모여 있어서 내가 과거로 타임슬립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세이켄지로 올라갈 때는 철길을 건너서 있는 옆문으로 들어갔는데, 고즈넉한 절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그만큼 자그마한 절이었다. 절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는데, 벽면에 전부 편액이 걸려있었다. 특히, 통신사가 남긴 편액이 정

말 많이 남아있었다. 전부 다 볼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 세이켄지를 시제로 하여 지은 것들이었다. 세이켄지는 산세와 바다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으로, 2층에 올라가 앞을 보면 태평양의 수평선이 보이고, 살짝 옆을 보면 후지산이 보인다. 또한, 세이켄지의 뒤쪽으로 가면 국보로 지정된 정원이 하나 있는데, 급한 경사의 산비탈 앞에 너른 연못이 있어, 산의 녹음과 그 연못에 투영되는 푸른 하늘의 조화가 매우 뛰어난 곳이다. 일본의 다도에서 매우 중요한 와비·사비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런 곳에서 시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까지 본 일본의 사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 편액뿐만이 아니라, 통신사가 남기고 간 물건들도 볼 수 있다. 류큐의 통신사가 남긴 편액과 악기도 있어서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세이켄지는 일본이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절이었던가 하고 짐작해볼 수 있었다.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하루 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피로감이 몰려왔다. 이곳저곳 안 쉰 곳이 없었다. 그런데, 그걸 다 상쇄할 만큼의 행복감이 있었다. 아직은 절대 스스로를 연구자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때만큼은 내 스스로가 연구자 같았다. 그렇게 불러줘도 괜찮을 것 같았다.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다짐하듯 격려했었다.

여행을 포함하여, 지난 1년간의 오키야마 생활은 나에게 엄청난 주체성을 키워준 시간이었다. 혼자 사는 것부터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행을 다니는 데에 있어서도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었다.

시작은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어로 된 논문, 고문서를 읽고 싶다는 발상에서부터였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전부가 대학원에 입학할 나를 위해 길을 닦는 시간이었다. 일본어도 많이 늘었지만, 그보다 더 큰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한문학을 바라보는 사고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통신사에 대한 발표를 준비할 때도, 사실 일본에서 나온 논문 한 줄 볼 생각을 못했었다. '일본어를 못하니까'라는 변명이 아니라,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했었다. 그러나 한문학은 동아시아의 공통 유산으로, 한중일의 언어가 비록 다를지라도, 삼국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재 중 하나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한문 작품이어도 중국·일본 어딘가의 한문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고, 그 작품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한국에만 있으리란 법이 없다. 통신사도 조선 측의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쪽의 자료도 있다. 전보다 한문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가 겨우 우물 밖을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또한, 여행 가운데 보게 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 아주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시조 100수를 읽는 것보다 그 시조가 쓰인 배경을 한 번 보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그려지지 않는 풍경이 있다. 하지만, 난 통신사의 루트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거의 사라졌다.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몸이 기억하고 있고,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은 한 장면, 장면들이 아주 오래토록 좋은 추억이 될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분명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부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취업에 급급해서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다. 나도 바로 결정할 수 있었던 건 절대 아니다. 1년이 넘도록 오래 고민했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후회는 없다는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길이라 겁도 많이 나고 실패할까봐 두렵기도 하지만, 전에는 싫어도 참고하느라 너무 괴로웠었다. 특히, 조별과제가 많은 마케팅은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꿀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밤을 새고 과

제를 하는 날이 많아졌다. 밤이 가는 줄 모르는 때가 많을 정도로 피곤할지라도 즐겁다. 나중에 '그 때 해 볼걸' 하고 후회하는 게 더 바보 같다. 정말 두려우면 둘 다 해 보면서, 재보면 된다. 그러다보면, 내가 캠퍼스 아시아를 하고 대학원을 확정한 것처럼, 언젠가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때 그 순간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 상하이에서의 한 걸음



정병철 부산대학교 에너지환경사업단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사업단 : 부산대 - 규슈대 - 상하이교통대)

## 1. 들어가며



교통대, 일본의 규슈대가 유럽의 Erasmus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한 아시아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이었다. 사실 16년 2학기 한학기 동안 핀란드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유럽 친구들이 국경 없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 할 수 있는 점들이 부러웠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시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내가 대학원에서 연구 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외국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들이 나에게 이 프로그램이 커다란 장점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운 좋게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 통지를 받고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처음 캠퍼스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은 전기공학부 대학원 공지사항을 통해서였다. 평소부터 대학원 진학을 염두 해 두고 있었기에, 틈틈이 학부생 공지사항 뿐만아니라 대학원 공지사항도 자주 보는 편이었다. 처음에는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고, '에너지 환경' 이라는 모집 공고문을 보고 관심이 갔다.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싶었던 분야도 에너지 분야였기 때문이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더 찾아보았다. 알고 보니, 한국의 부산대, 중국의 상하이



## 2. 설레는 마음을 간직한 채 상하이로



12일 동안 머무른 호텔

그렇게 중국 상하이로 떠나기 위해 김해공항에 6시 30분까지 모이기로 한 날이 왔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시각인 4시 30분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은 여행을 가봤지만 정작 한국에서 가까운 중국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더 설렜던 것 같다. CK를 제외하면 학부생이 나 혼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당연히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중국 상하이 푸둥 공항에 도착했다. 원래 계획은 첫 날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일본 친구들이 날씨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하루 미뤄졌다. 우리에게도 하루 더 자유 시간이 생긴 것이다. 도착한 이후 호텔에 짐을 풀고, 룸메이트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그렇게 호텔 주위의 시내를 돌아다니며, 상하이에 도착한 첫날을 보냈다.

## 3.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오리엔테이션 - 정지환 교수님

다음날에는 아침 일찍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곧바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었는데 첫번째 주는 주로 한국, 중국, 일본 교수님이 돌아가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대해 수업을 해주시고, 매시간 마다 퀴즈를 치는 형식이었고, 두번째 주는 에너지 관련 기업 견학 및 조를 나누어 하나의 랩에서 실험을 하여 조별 발표를 하는 형식이었다. 영어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부담감이 없었지만, 대부분 재료 및 환경 전공 관련이었던기에, 다소 생소한 주제들이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몇몇 교수님들께서는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그 수업 시간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주제에 대해 설명하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교수님들께서는 그 분야의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약 일주일 동안의 수업 동안 나의 전공에서 벗어나, 재료, 환경 분야에 대해 수업을 들으며,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좁혀져 있던 나의 시야를 조금 넓힐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크게 세가지 수업이 기억에 남는다. 첫번째는 'Conversation and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라는 주제로 강의하신 일본 규슈대의 Tanabe Tetsuo 교수님 수업이었다. 원전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교수님께 직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에너지 원천인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설명을 시작으로, 핵분열과 핵융합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일본에서 일어난 원전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 이신 교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두번째로 기억에 남는 수업은 'Wastewater to Electricity'라는 주제로 강의 하신 부산대의 이태호 교수님이다. 교수님께서서는 직접 현재 연구 중인, 폐수를 이용한 전기 생산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폐수를 이용해서 만든 전기로 자동차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현재는 아주 작은 전기지만, 미래 에는, MFC(Microbial Fuel Cell)Process를 통해,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더 큰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폐수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전기도 뽑아 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셨다. 이때까지 다양한 Renewable Energy에 대해 들어봤지만, 폐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인상 깊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수업은 'Biomass Resources and Processing Technology to Produce Fuel and Value-added Products'라는 주제로 수업하신 상하이 교통대의 Shen Yanwen 교

수님 수업이다. 전반적인 Bio-renewable resources (Biomass)의 원리, Biofuel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의 종류와 장단점 및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여러 익숙하지 않은 화학 물질 이름들이 많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이해하기에는 괜찮은 내용이었다. 이 세가지 수업 뿐만아니라, 다른 교수님의 수업도 많이 유익했다. 이러한 각 수업들 뒤에는 그 수업시간에 배운 퀴즈가 있었다.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오픈북으로 치루어졌다. 성적을 잘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 분야에 대해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한다. 나는 사실 이러한 에너지 생산에도 관심이 있지만, 연구하고 싶은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의 현재 전력 계통에 연계하는 부분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적 특성으로 인해 전력 주파수 및 전압에 불안정성을 야기하는데, 어떻게 제어 할지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단기간의 수업시간이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해 들을 수 있었던 것이, 후에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4. 공부만 하러왔어? NO!

개인적으로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지만, 열심히 여행 하는 것도 큰 목적이었다. 평일 수업은 대부분 오후 다섯 시 반에 끝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내까지 지하철로 한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라서 시내에 나가기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중국인 친구들이 추천 해준, 학교 주변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은 이후 호텔에서 모여 놀았다. 저녁을 학교에서 먹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첫번째 주 토요일 랩로테이션에 대한 설명과 각 조별로 실험실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이 빨리 끝나자마자, 여기와서 친해진 친구들과 곧장 지하철을 타



와이탄

예원 가는 골목

대한민국 임시 정부

고 시내로 나갔다. 인민 광장을 시작으로, 난징동루 쪽으로 걸었다. 거기서 찾은 맛집에서 양꼬치, 마파두부, 꺾바로우 등 다양한 중국 음식을 시켰다. 이름이 잘 기억 안나지만, 양꼬치와 꺾바로우가 정말 맛있었다. 난징동루에서 와이탄으로 가는 길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다. 다시 한번 중국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와이탄에서 바라보는 황푸강 동쪽의 동방명주 및 상하이 타워 등 야경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일요일에는 온종일 자유시간이었다. 토요일 밤늦도록 돌아다니던 탓에 피곤했던 터라, 오전에는 호텔에서 푹 쉬다가 오후부터 다시 시내로 떠났다. 예원가든을 시작으로 신천지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저녁에는 황푸강 동쪽으로 건너갔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타워인 상하이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상하이의 야경 풍경은 정말 잊지 못할 것이다. 바라보는 위치를 옮길수록 달라지는 모든 야경의 모습을 말이다.

## 5. 학교 강의실을 벗어나

두번째 주 수요일 하루는 현장학습의 날이었다. Laogang과 Shanghai Synchrotron Radiation Facility(SSRF) 두 곳을 방문했다. 두 곳 모두 푸둥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두개의 버스로 나누어 타고, 첫번째 견학지인 Laogang으로 향했다. 푸둥 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알고 보니, 하루에 유입되는 쓰레기 양 측면에서 중국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였다. 그에 맞게 크기도 엄청나게 컸다. 운송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운하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쓰레기 매립지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메탄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메탄을 이용하여, 바이오 에너지로써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 부지에는 바이오 에너지 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기를 이용한 전기 생산도 하고 있었고, 가까운 미래에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기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나의 거대한 신재생



SSRF 견학 장소

에너지 복합단지인 셈이다. 여기서는 헬멧을 써야 했다. 거기서 전반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아무래도 쓰레기 매립지인 만큼 냄새는 감수해야 했다. 그렇게 첫번째 견학 장소 방문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난 뒤, 두번째 견학지인 SSRF로 향했다. 내가 알고 있는 입자가속기는 한국 포항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중국, 일본에는 상당히 많은 입자가속기가 있었다. 입자가속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 SSRF는 국내외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엔지니어 및 과학자들에게 개방되어, 연구에 큰 도움을 주는 곳이었다. 한 일본 친구가 플라즈마 분야를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너에게는 이곳이 특별한 곳이지 않나라고 물어보니, 그렇다면서 과연 내부 사진 찍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해했다. 일본의 입자가속기 내부는 사진찍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딱히 사진 찍는게 금지되지 않은 것 같아, 일본 친구는 들뜬 상태로 사진을 찍었다. 처음 입자가속기 내부로 들어가 보았는데, 원리 자체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 6. 이번엔 실험실에서

첫번째 주에는 주로 수업을 들었다면, 두번째 주는 조를 나누어 하나의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뒤, 최종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중국인 Xinrui와 일



실험 중인 Xinrui

실험실 내부

카페에서 발표 준비

본인 Yusuke, 한국인 동준이형 준하와 같은 조였다. 실험 주제는 'Degradation of humic substances in nanofiltration concentrated leachate during ozonation process'였다. 환경공학 쪽 실험실인 것 같아 처음에는 용어와 실험 도구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웠다. 하지만 실험실 조교인 Hui가 너무나 친절히,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쉬운 질문을 해도, 항상 웃으며 답해 주어서 너무나 고마웠다. 또한 환경공학을 전공한 동준형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간단히 실험을 말하자면, leachate안에는 humic acid와 fluvic acid와 같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ozonation 과정을 이용하여 이러한 물질을 분해시켜, 정화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를 COD(Chemical Oxygen Demand)와 PH 측정을 통해 오염의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실험이었다. 질적인 측면에서 fluorescence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humic acid 화학물질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오존이 강한 산화제란 것을 실험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Hui가 해롭다면 혼자 보호 마스크, 장갑을 끼고 오존발생기 근처에서 오존이 잘 생성되었는지 보여주었는데, 오존에 의해 실험용 보호 장갑에 구멍을 만든 것을 보고 놀랐다. 실험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처음 사용해 보는 실험 도구도 많았고 화학용액, 물질의 이름들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다. 이 실험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었다. 그 시간 동안 중국, 일본인 친구들과 서로 나라 말을 가르쳐 주고 배우면서 시간을 때웠다. 덕분에 웃으면서 재미있게 실험을 했던 것 같다. 토요일 최종 발표를 위해서 서로 파트를 나누어 발표 준비도 하였다. 내가 맡은 부분은

fluorescence spectroscopy를 이용한 실험의 결과 부분이었다. 카페에서 다같이 모여,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유기물들이 분해 되었는지 인터넷을 찾아가며 토론도 하며, ppt도 함께 만들었다. Hui도 바쁜 시간을 내서 카페에 찾아와 토론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실험 조교를 정말 잘 만난 것 같다. 영어로 발표해 보는 경험이 많이 없었을 뿐더러, 여러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많이 떨렸지만 그래도 다 같이 잘 마무리를 한 것 같다. 그렇게 12일동안의 상하이 교통대학교에서의 Summer Camp는 마무리가 되었다.

## 7. 끝맺으며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사실 많이 망설였다. 주변 동기 친구들은 취업 준비하고 여러 자격증 따기 위해 공부하느라 바쁘는데, 이렇게 해외에 갔다 와도 될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만큼 또 많이 배워 오면 되지라는 생각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지원하고 보았다. 결론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이 나의 대학 생활 중에 가장 잘한 것들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관심 분야인 에너지, 환경강의를 세계 우수의 교수님께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과, 일본, 중국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 모두 나로 하여금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마지막 Farewell party때 박상후 교수님께서 테이블로 찾아와 주셔서 "사실 한국 중국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적어도 우리 세대까지 그랬지만, 너희 세대에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이러한 프로그램과 같이 학술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도 이러한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한국 중국, 일본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얽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먼 나라이다.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한다면,





반드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Positive Sum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12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추억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Campus Asia 프로그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6개월간의 일본

- 배움의 연속,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동아시아 유스콘트네 실현의 문



이호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업단 : 성균관대 - 나고야대 - 인민대)

## 서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애니의 왕국 일본. 오타쿠의 성지 일본. 이 이미지들은 흔히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일 것이다. 가까워서 해외여행하기 좋은 곳. 내가 그나마 많이 가봐서 익숙한 외국이라는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이러하였다. 하지만 여행을 자주 다닌 것과는 달리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와 과거 역사들 때문에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 또한 있었다.

일본 여행을 갈 때마다 2박3일, 3박4일 같이 이제 그 나라에 익숙해질 무렵 떠나야 했던 나는, 짧게 끝난다는 아쉬움에 과연 이 나라에서 살게 되면 여행에서 느낀 것과는 다른 또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들었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으로 일본에서 학업 생활을 하게 된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한국 대표로서 성균관대학교 대표로서 캠퍼스아시아 교환학생으로 선정된 나는 드디어 나의 이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 학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수업 초기에는 어색한 나날들이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수업 방식에서 얻는 새로운 즐거움을 통해 그 어색함은 사라졌다. 한국에서는 주로 일방적인 수업이 이루어진다. 즉 교수가 강의를 하면 학생은 그것을 받아적고 모든 시험내용은 강의에서 출제가 된다. 일본에서 수강한 강의들은 달랐다. 학생들은 수업중간에도 서슴없이 질문을 던진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후나 따로 메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들은 직후 곧바로 질문을 하여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학생들의 참여도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인상 깊었던 수업은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었다. 국제 중재 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수업이었는데 수업 진행방식은 대부분 실제 재판사례를 놓고 누가 승자인지 토론하면서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국가,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의 논리를 펴며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교수가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도 바로바로 학생들의 질문이 들어왔고 교수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하며 수업을 전개하였다. 나에게서는 처음 접하는 수업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쉽게 그 수업의 일원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교수는 질문하지 않는 내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모든 내용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고, 처음 공부하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천천히 그 수업의 일원이 되어가려고 노력하였다. 일방형의 강의를 아니라 쌍방향의 강의로써 학문을 공부하자 기존보다 쉽게 이해가 되었다.

일본에서의 학교 생활은 이렇게 강의 방식에서만 놀라움을 준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학문을 대하는 태도에도 나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같이 강의를 수강하였던 학생들은 학문을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발전을 위한 양식으로써 배우고 있었다. 사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나는 학문을 배울 때 가장 우선시 되는 점이 학점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느냐이다. 그리고 같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강의를 들을 때도 시험에 나올만한 것 위주로 공부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성적이 제일 잘 나올 수 있을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그래서 쉬도 때도 없이 교수에게 질문을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다. 그 모습에서 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 우리는 대학생이다. 사회인으로 나가기 전 우리는 학생으로서 배움의 근원을 찾아 20대의 푸르른 청춘을 보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수업을 듣고 나서 우리는 아직 닦지 않은 현실에 대한 막연한 무

서움 때문에 학문의 본래의 취지인 배움에 대한 추구가 아닌 수치화된 개량화된 목표점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와야 하는 싸움, 나의 학문적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싸움에서 먼저 이긴다면 자연스럽게 남보다 한 발짝 앞서나가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일본의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깨달을 수 있었다.

## 여행

외국 생활을 하면서 꿈꾸게 되는 것은 바로 여행일 것이다. 20년간 살아왔던 곳에서 벗어나 타지에 생활하면서 주변 환경과 문화는 너무 달랐다. 나는 그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인들의 고유한 정신 문화,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 대해 좀 더 탐구하고 싶었다. 단순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관광지 아닌 일본인들이 주로 찾아가는 그런 여행지에서 그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다.

나는 일본의 고유한 문화를 느끼고, 생소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였다. 그렇게 선택한 곳은 바로 '알펜 루트'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알펜 루트에 대해 생소할 것이라 생각한다. 알펜루트는 동양의 알프스라 불리우고 일본인들의 대표적인 힐링 여행지로 손꼽힌다. 5월에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맥들은 수줍은 듯이 새하얗게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새벽 네시반 기상을 했다. 그리고 산악열차를 탔다. 새벽 다섯시에 첫 티켓팅이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티켓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길래 이른 새벽부터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드디어 정상에 올랐을 때 나는 왜 그토록 사람들이 많았는지 알 수 있었다.

일본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풍경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온통 새 하얗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도쿄, 오사카의 정신 없는 도심의 모습. 교토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모습과 다른 천예의 자연환경앞에서 나는 스스로 작아질 수 밖에 없었다. 해발 3000m의 봉우리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은 감탄을 그치 못하였다. 북적거리는 도심의 관광지들로부터 벗어나 위대한 자연 앞에서 그 경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마음 또한 겸허해지며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다.

‘남들과 다른, 일본에서 생활을 해야 갈 수 있는 여행지로 가자’라는 나의 목적은 알펜루트 여행을 통해 달성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의 정신문화와 일본인들의 삶을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떠한이었을까?



내가 알펜루트를 간 5월은 일본의 최대 여행 성수기인 골든위크때였다. 일본은 5월 초 4일에서 5일간 연휴가 있는데 이 연휴를 일컬어 골든위크라 칭한다. 이 골든위크때는 일본 국내 유명 관광지는 모두 사람으로 붐빈다. 내가 방문한 알펜루트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떠한 교통수단을 타더라도 30분이상 대기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심지어 저 눈으로 덮인 산에도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보통 이렇게 사람이 많은 관광지 같은 경우에 의례 줄이 길다는 이유로,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황금 같은 연휴, 간만

에 얻은 여유에 얻은 여행 계획들이 인파들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수기에 있는 혼한 바가지 요금과 상인들의 불친절함은 기분 전환을 하러 온 여행지에서 기분을 나쁘게 만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곳은 달랐다. 사람들은 단 한명도 짜증을 내지 않았고 심지어 길고 긴 대기 행렬에서 조금이라도 몸고리 부딪히더라도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켰다. 평상시보다 바쁜 식당의 종업원들도 웃으면서 친절로 대응하고 있었다. 많은 인파가 있는 자리에는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도 눈살을 찌뿌리게 만드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여행객들뿐만 아니라 여행지를 지키는 사람들도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성수기라 겪는 불편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 불편마저 즐기자 하는 모습을 나는 볼 수 있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평소와 비교할 수 없이 바쁘더라도 나의 손님은 나의 고객, 내가 맡아야 할 사람이라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짜증한번 없이 응대해주었다. 남에게 피해를 절대 주지 말고 자신들의 고객만큼은 자신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나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었다. 나는 살면서 과연 내가 모르는 타인에게 이렇게 배려하면서 살아왔는가. 나의 편안함을 위해 남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나부터 먼저 남에게 배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여행지에서 본 일본인들의 모습은 나 자신을 먼저 반성하게 하였다.

## 인턴

경제·외교·정치적으로 보다 밀접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한중일 삼국 간에 공유될 수 있는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Jus commune, 공통법)의 형성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에서는 이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 쌓는 것을 돕기 위해 학생들에게 2주간 일본 현지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 한국에서 2주라는 단기간 동안 로펌에서 인턴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다. 이러한 천금같은 기회를 일본이라는 외국에서 잡게 되다니. 6개월간의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순간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던, 간접적으로 보기만 했던 법률사무소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할까? 나의 꿈을 현실로 실현시켜 살아가고 있는 변호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도쿄에서의 인턴 첫날. 인턴을 같이 하게 될 나의 인턴 동기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은행, 법률사무소 국가 특허청등 사회 각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온 인재들이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배움의 수준이 다들텐데 내가 이들 사이에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 되었다. 그러나 기우에 불과했다. 그들은 나를 단순히 후배, 나이 어린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쉽게 경험해볼 수 없는 그들의 이야기를 한명의 동료로서 전달해주었다. 그들과 생활하며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인턴 생활이 법률사무소 인턴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직장에서의 인턴을 한 것 같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나의 이 훌륭한 동기들과 함께 10일간의 인턴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번 법률사무소는 주로 국제소송을 담당하고 있었던 법률사무소였다. 인턴 기간동안 각 변호사들은 세션을 진행하며 자신들이 변호하고 있는 소송들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당 소송과 관련된 법에 대해 인턴사원 각 모국의 법과 어떠한 비교점이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법에 대한 지식은 교과서 속의 이론적인 내용과 수록되어 있는 판례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사건과 나의 지식을 결부지어 토론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이를 통해 국적이 서로 다르더라도 각

국가가 추구하는 공통된 법의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세션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이야기가 몇가지 있다. 먼저 인턴기간간 멘토가 되어주신 변호사의 이야기다. 그는 과거 한국기업과 일본기업간 공동사업 관련한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데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을 나의 멘토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서는 어구하나에 따라 각 집단의 이익이 결정되는데 마지막 최종검토를 할 때 한국측에서 일본 측 몰래 한국어판 계약서에 일본어판 계약서와 다른 어구를 집어 넣은 것이다. 다행히 나의 멘토 변호사는 한국어를 알았기에 이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였지만 이 어구로 인하여 일본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 이를 통해 나의 멘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철두철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이니까 한번쯤 실수해도 괜찮아'라며 실수한 나 자신을 정당화시킨다. 그러나 이 실수는 나비효과처럼 언제 나의 미래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 위의 사건만 하더라도 그 어구하나로 일본 기업의 막대한 이익 손실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를 한치라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검토하여 클라이언트의 손해를 막은 것이다. 진행하는 매사에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자세대신 항상 최선을 다해 임하여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에서 이공계 기업에서 컨설팅을 하다 일본에서 로스쿨 진학을 통해 법조계의 길로 들어선 변호사의 이야기이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일한 경력을 토대로 컨설팅과 법무 관련된 일을 결합하여 자신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자 즉 어드바이저가 아니라고 하였다. 법률적인 조언이라면 어느 변호사라도 클라이언트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조언을 넘어 클라이언트가 가장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컨설팅까지 해야한다고 하였다. 즉 어드바이저적인 역할을 넘어 컨설턴트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법조 시장에서 그저 클라이언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최선의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알려주는 것이 법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그것도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10일간의 인턴은 나에게 이러한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며 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인턴동기들과 나눈 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멘토들에게 들은 법조인으로서의 자세는 미래 한중일의 '유스코무네' 형성에 이바지하고 싶은 나에게 여러가지 시사점을 주었다.

## 결론

어떠한 나라를 여행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이미지 혹은 나쁜 이미지의 일부분을 안고, 단편적인 기억만 안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해당 나라에 여행이 아닌 새로운 생활터전으로서 살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단편적인 기억이 아니라 서사적인 기억을 얻는다. 이를 통해 겉이 아닌 생활 깊숙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제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6개월간 일본에서 학업생활을 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좀더 실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학교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학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인식이 편협했었고, 폐쇄적이었던 생각하게 반성하게 되었고, 여행을 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일본인들의 국민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인턴생활을 하면서 각국에는 공통된 법의식을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고 미래에 법조인을 꿈꾸는 나는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그렇게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매체, 역사적 배경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6개월의 생활을 통해 변화하였다. 일본은 충분히 배울점이 많은 국가라는 것이었다.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은 경제·외교·정치적으로 보다 밀접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한중일 삼국 간에 공유될 수 있는 동아시아 '유스코무네'(Jus commune, 공통법)의 형성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한중일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르게 살아왔다. 따라서 단시간에 삼국을 아우르는 공통된 법의식을 가지는 인재를 육성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멀었었던 과거의 시간을 가진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무한한 미래의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첫 단추는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중일간 협력을 꿈꾸는 공통된 의식을 가진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의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들으며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유학 온 나라를 여행을 하며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여 그들의 생활방식과 사람

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턴생활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스코무네'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를 갖추 수 있을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에서 각 학생들은 서로의 나라에 대해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삼국이 그렇게 먼 관계가 아니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매체로만 접하던 각 나라를 직접 생활하면서 보고 배우으로써 각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미지는 각국간 배울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 시켜줄 것이다.

이 새로운 이미지는 미래에 우리가 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한중일간 화합의 장을 펼치는데 소중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합을 하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우리는 그 이해를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배울점을 확인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심리적인 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국이 아닌 타 국가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어렸을 적부터 매체를 통해 형성된 고정된 이미지이기에 직접 그 나라를 체험하기 전까지,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쉽게 바뀔 수 없다.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은 한중일의 화합을 생각하는 학생들과 함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서로의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먼 미래에 우리가 '유스코무네'형성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 글로벌대에서의 '도움닫기'



박경춘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사업단 : 성균관대 - 오카야마다 - 지린대)

중어중문학을 전공하며 교직 이수를 통해 중국어와 중국어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던 세계 CAMPUS-ASIA 교환장학생 파견이라는 기회는 중국어 교사로서 자신감을 갖게 할 유창한 중국어 실력 배양이라는 '외면'과 동아시아 고전을 통한 깊이 있는 동아시아 문화 이해를 통한 '내면'의 능력 향상에 큰 자양분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전공 지식을 습득하며 얻은 결론은 중국어를 효율적으로 교육하는데 있어 동양의 고서(古書)에서 밝힌 도덕, 바람직한 가치관 등을 한자 하나하나와 결합해 가르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그러한 방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국어 교재를 집필한다면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인재'가 되어 바람직한 사회의 등불이 되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CAMPUS-ASIA 교환장학생 파견에서 만난 수많은 국가의 친구들은 제가 더욱 성숙한 세계 시민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었습니다. 지난 학기는 단지 언어만 능통하게 구사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척이나 얕은 생각이었음을 수차례 깨닫게 해줬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대만인 룸메이트, 나이지리아에서 온 학우, 그리고 CAMPUS-ASIA 프로그램에서 만난 일본 친구들과 ‘

중국어'라는 공통의 도구로 서로의 생각과 문화를 교류하면서 제 얕은 시각이 보다 넓어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파견 기간 전에 고심 끝에 위와 관련해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독서 및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 고전학 및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깊게 하자', 둘째는 '중국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켜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를 통해 시각을 넓히자' 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제가 파견 기간동안 참여하고 학습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 1~4와 같습니다.

- 1) 전고(典故)100 읽기를 통한 성어, 습관용어와 관련한 중국 고전 이해
- 2) 일본, 중국인 CAMPUS-ASIA 교환장학생들과 독서토론 및 교류회 참여
- 3) 중국시사 혹은 세계 사회문제 관련 400~800자 작문 일주일에 두 편 이상 쓰기
- 4) 학교 주관 유학생 문화 체험활동 다수 참가(대련 문화체험, 동북지방 설명회 등)



## 1. 전고(典故) 100 읽기를 통한 성어, 습관용어와 관련한 중국 고전 이해하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어떤 심오한 뜻을 전달할 때를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고사성어나 어떠한 과거 인물의 행적을 들어 비유하거나 예시를 듭니다.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어 및 습관용어와 관련한 역사적 인물들의 고사 100개를 묶어 놓은 책인 전고(典故) 100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연구하면서, 중국어 실력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이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고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호랑이를 얘기하니가 정말 호랑이가 왔다.’라는 표현을 ‘一說曹操，曹操就来(조조를 얘기하니 조조가 정말 바로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을 중국인 친구와 대화할 때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중국인처럼 말한다!’, ‘너 그거 어디서 배운 고사야?’ 등의 말을 중국인 친구로부터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자가 제자들과 토론한 교육의 목적, 다양한 중국 역사 속 인물들의 실수들을 중국어로 읽으면서 진정한 교육에 대한 나름의 개념도 세울 수 있었으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무엇을 더욱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 2. 일본, 중국인 CAMPUS-ASIA 교환장학생들과 독서토론 및 교류회 참여

길림대학에서 주관했던 프로그램 중 준비하는데 가장 힘들었지만 또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로 3국(한국, 중국, 일본)독서 교류회가 있었습니다. 활동은 각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서로 각 나라의 고전의 내용을 중국어로 소개하고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외국 친구들의 질문을 중국어로 받고 답변하고, 이에 대해 각자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같은 학교에서 온 한문학과 이지유, 최나영 학생과 함께 한국 최초의 고전 소설인 <홍길동전>에 대

해 먼저 인물관계,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홍길동전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주요 시사점인

- 신분제 사회에 대한 불만
- 각종 전쟁 및 탐관오리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

에 대해 일본, 중국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그들과 함께 각 나라의 이러한 시사점을 담은 고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14~16세기에 조선을 제외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담은 다른 국가의 문학 작품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어로 <홍길동전>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고 청중들 중에는 중국 대학원생도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교류회를 통해 동아시아 고전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PPT의 발표자로서 중국어 말하기 및 논리적인 발표 실력 향상을 이뤄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CAMPUS-ASIA 독서발표회

<홍길동전> 소개 중 일부

## 3. 중국시사 혹은 세계 사회문제 관련 400~800자 작문 일주일에 두 편 이상 쓰기

또한 중국어를 전공인 제게 중국 교환학생 파견은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경험의 장인 동시에 중국어 실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학기 초부터 고급2반 쓰기 선생님과의 친분을 쌓아 수업 교재와는 별도로 중국의 시사(1가구 1자녀 정

책의 폐지 찬반) 혹은 세계 사회문제(사형제도 폐지 찬반)에 관련한 주제로 매주 2회 이상 400~800자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하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400자, 500자도 쓰기 힘들었던 제가 600자 작문을 무난히 완성하고 학기 말에는 1000자에 가까운 글도 무리없이 완성하는 모습을 돌아보니 역시 부단한 노력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필수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특히 작문에 중점을 두고 공부한 결과 학기말 성적 역시 평균 96점 이상으로 무척이나 우수했습니다(중국 대학은 원점수로만 점수를 매김, 한국 대학 변환 성적 4.42/4.5 만점). 중국어는 작문 실력이 곧 독해 및 듣기실력이며 심지어는 말하기 실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장 쓰기를 중시하고 잘 하기 위해서 까지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한 학기 동안 노력한 결과 뜻한 성취를 모두 이루게 되어 무척이나 기쁩니다.



매주 작문노트 (1)      매주 작문노트 (2)      학기말 성적표

#### 4. 학교 주관 유학생 문화 체험활동 다수 참가(대련 문화체험, 동북지방 설명회 등)

CAMPUS-ASIA 프로그램이 모두 다 끝나고 그 지역 한편한편을 회상하고 있는 지금, 길림대에서 이렇게 한 학기를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학교에서는 CAMPUS-ASIA 교환 장학생들과 공자학원, 중국정부장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한 번 다른 도시로의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녕성 대련으로 떠난 2박 3일간의 문화 체험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내륙도시 장춘에서의 학업을 잠시 놓아두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오기 전날 밤 침대에 걸터앉아 세계 각국에서 온 장학생들과 밤새 중국어로 했던 대화들은 지금 생각해보도 제 시야를 크게 넓혀준 고마운 경험입니다.

인천과 600km도 떨어지지 않은 해변도시인 대련은 중국인들이 浪漫之都(낭만의 도시)라 부르는 풍경이 아름답고 상업이 발달한 동북부의 부자 도시입니다. 확 트인 서해바다가 보이는 성해광장에서 기념 사진을 찍으면서 만약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되는 그 날이 온다면 현재는 중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동북 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특히 북한과 근접한 요녕성의 해안 도시들이 동북아 교통의 요지가 되면서 크게 발달할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동북 3성에 관한 CAMPUS-ASIA 특강에도 참여했는데, 동북 3성에 대한 역사, 특히,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때 식민지의 아픔을 가지고 있듯 중국의 동북 지역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 동북 3성 전체 인구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족들과 현재 한국의 문화를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의 대부분이 하얼빈 서북부의 유전 지대에



상업이 발달한 대련 시내의 모습      대련 성해광장에서 찍은 한 컷



모택동의 친필로 쓰여진 금사탑

동북 3성 지방 문화 이해 강연

서 생산된 기름이라는 사실 역시 제가 흥미롭게 들은 내용 중 일부입니다.

## 소감

먼저 4개월이 좀 넘는 기간 동안 CAMPUS-ASIA 교환 장학생의 일원으로 길림대에서 너무나 많은 추억을 남기고 올 수 있었기에 성대에서, 길림대에서 저를 가르쳐주시고 적응을 도와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아직 대학생이지만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진리처럼 믿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좋은 기억만 남는다면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장춘에 도착했을 때 눈에 들어왔던 중국 남방의 해안 도시와는 다른 낙후된 도시 환경, 3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영하 10도 이하의 혹독한 날씨, 그리고 한국에서 배워왔던 중국어보다 고급 중국어를 배우는데 있어 나름의 스트레스는 장춘 길림대에서 수학했던 한 학기라는 시간동안 잊을 만하면 한 번씩 고민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거리를 타지에서 홀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 얻은 지혜와 중국어에 대한 지식은 영원히 나의 앞날을 밝혀 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청명절 연휴 때 다녀온 서안 및 낙양 여행에서 느낀 것들, 그리고 장학생 신분으로 만났던,

아직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곤 하는 다른 많은 국가들의 장학생 친구들은 CAMPUS-ASIA 프로그램이 세계 준 또다른 값진 선물입니다. 또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희망했던 동기처럼 앞으로 중국어 교사가 되어 미래를 개척한다면 이 CAMPUS-ASIA 프로그램이 세계 경험하게 해 준 것들은 단지 일회성의 선물이 아닌 인생 전체의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제 모습을 단순한 중국어가 아닌 진정한 중국을 이해한 교사, 동아시아 고전에서 밝히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진 인재로 그려나가기 위해 아직도 많은 공부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 교환장학생 프로그램은 비록 끝났지만, 한 학기의 길림대 교환학생을 ‘도움닫기’한 저는 여전히 그 목표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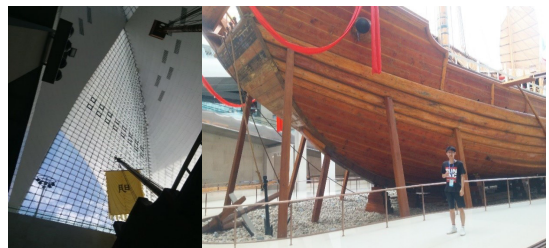
# The First Step



권성진 한국해양대학교  
(사업단 : 한국해양대 - 동경해양대 - 상해해양대)

How can I express my feelings about Shanghai Ocean University Summer School Program! Maybe I can start with my sincere gratitude for Shanghai Ocean University,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Tokyo University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nd lastly but not least, all the people related to the program. I will be honest that the program was one of the most unique and invaluable moments in my life. It was truly a chance of a lifetime.

On top of everything, I hope this program lasts long and flourishes in the years to come. As we all know, China, Korea, and Japan are in a very complicated situation. We are geographically close to each other and share similar cultural, historical backgrounds. More interestingly, we share not only these factors. It is very interesting that we, three countries, are all major nations in the ocean, maritime field. China, Korea, and Japan have led the shipbuilding area, and are all major nations in both fisheries and seafaring industries. And eventually we share the same sea.



That is, we share interest in the maritime field. Therefore, we have no choice but to cooperate. I think this fact is what makes this partnership between three institutions such a perfect sense for all three countries.

Some might say we can cooperate only after we solve the historical problems first. It is true that we share very difficult and sensitive matters which have made us hesitate to cooperate until recently. And this has been a main reason why three countries sometimes collided each other. However, as the history has shown us, we can solve the problems by mutual understanding. Maybe we can understand each other by fighting and this sometimes might be dramatical. But if

there is a much better option, why wouldn't we go for it? Obviously, the better option we have is cooperation. And I dare to suggest that this has been the only good option throughout the history all over the world and will be in the future as well. This is much easier, effective in the long run, and a more secured way.

In fact, there was no place like Europe that kept fighting on an international basis for almost 2000 years. But they finally found that there is no better option than cooperation. They established the European Union and it is well known that there is a program called ERASMUS (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as a part of an effort to cooperate. Furthermore, it is obvious that we can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when the participants are young. It would be much more effective when they are students.

CAMPUS-ASIA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aims to develop the relationship between 3 countries. And this summer school program was the first step taken by 3 institutions being the members of CAMPUS-ASIA. This was the courageous step which will hopefully become the cornerstone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ree countries. And I heard that we are the very first students of this program for three institutions. I just can't appreciate it more. We gained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arine field by taking great lectures from specialized professors. We were able to share our mutual thoughts, became better



aware of each other's countries, shared food and most importantly, the cultures. We were the lucky ones who were granted this great opportunity to acquire both knowledge and experience.

Globalization became an important aspect nowadays. By studying abroad, students can get very important experience of how it is like to study in another country. In this way, it is evident that the students will be better prepared for the globalized world. And at the same time, the international students themselves help the school make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addition, living in another country itself brings challenges which mainly come from the language barrier and the cultural differences. But as we try to solve tasks together, we will find out that we are the same humans after all. No discrimination and no misunderstandings from stereotypes towards each other anymore!

This has been just some of the reasons why we need the cooperation between three countries. And now,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days I greatly enjoyed during the summer school



program

Frankly, I was very shy on the first few days since I was not very used to such a multicultural surrounding. I was overwhelmed by the situation and started to think like a philosopher. It was like 'Where am I and Who am I?'. But soon, I could feel much more relaxed and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thanks to the kindness and hospitality from the people there. All Chinese facilitators were so kind and passionate. And not only the Chinese facilitators but all the people there were so nice as well. I met great professors, Chinese friends, and Japanese friends. I really learned a lot from them.



The most impressive thing during the program was the ongoing process we took to get the result - the presentation. It was quite different from my home country. I'd like to give my special thanks to my teammates. The atmosphere there was free and enjoyable while everyone was passionate. And they were very cooperative. Whereas it is very stiffened and only few are

motivated in Korea. It was my pleasure to be a team together with them. I am so proud of them that every single member did a great job. Group 3 rocked! And I will never forget Sam, our group leader, who suggested on the first day that we, all 50 students, briefly introduce ourselves during the short break time and started with himself. He looked like a true leader and I couldn't help being a team together with him.



In addition, we shared our opinions and cultures. For instance, we made dumplings, the Chinese traditional food, in the food science laboratory. I met some experimenters and students from Singapore there. Although it was the first time we met each other, they invited us with great hospitality and welcoming mood. We had a great time making and eating dumplings together. We shared mutual thoughts, toured the campus together and asked about each other's countries.

And I also remember that we visited Shanghai Maritime Museum where I was able to notice 鄭和 and his ship. It is well known that he is one of the greatest sailors in history. I had been just told about his heroic move in Korea and I was only able to meet him in the history books. So, it was a very special moment to visit his home country,

China. There were Chinese language and knot course as well. To be honest, these two courses were the most enjoyable since the teachers were so passionate. I wish there are more cultural courses like these in the future programs.



On the other hand, it is very hard for me to choose the best lecture since all the lectures were great, professional. But if I should pick only one, I would like to choose the lecture about shark. It was very interesting. I still remember the question that the professor gave us. 'It is natural that the predators are few, and the preys are many in land. A normal triangle-shaped food chain. However, how is the reversed triangle-shaped food chain possible in the ocean? That is, predators sometimes outnumber the preys.' The answer was that the number of preys can be few but their reproduction is fast enough to keep the ecosystem. We also learned what 'keystone species' mean, the sharks' organisms, and their characteristics categorized by the species. The most impressive view from the professor was that the sharks are also important in the ocean. If their populations decrease, the second predators will flourish accordingly. Which means the producers - the main preys - will be dramatically decreased.

It was a very fresh approach to me that the sharks also take an important role in the marine ecosystem.

The program was also amazing that it helped me gain some self-confidence. For instance, my brain was so busy for first few days translating my opinions into English whenever I spoke. Accordingly, it took much longer to say, that is, there were higher possibilities to be filtered mainly by grammar and this made me hesitate to say. But thanks to the help, I became less scared to make mistakes. What's more, as I tried to open myself more, people were much more welcoming. I always asked how to say in Chinese and Japanese and tried to communicate with their own languages. They taught me with kindness and responsibility. My Chinese and Japanese skills improved day by day thanks to them.

The program really means a lot to me not only because I had great time and met precious people there, but also it taught me what I should try harder to do better next time. It was a great honor to get this opportunity which broadened my horizon. I'm firmly convinced that this summer school program was a very educational experience, both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Not only is this the first step for three institutions, but this is also my first step which will lead me to become a global maritime professional. Thank you!





2017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및 UCC 수상집

# 장려

Collection of CAMPUS Asia Korea-Japan-China Essay  
and UCC Contest Prize Winners 2017

# 중원에서 답을 연다



정상락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업단 : 고려대 - 고베대 - 푸단대)

## 참가계기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나의 학부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전 까지만 하더라도 만화가 이원복씨가 중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칭하였던 것처럼 나에게도 중국은 가깝지만 막연한 나라였다. 그러다가 한국과 호주에서 학부수업과 싱크탱크나 국제기구 및 대사관 등에서의 인턴십을 병행 하면서부터는 중국을 점차 자주 접하고, 알아가게 되었으며, 호기심 또한 가지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지금 내 책장에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나 역사와 관련한 책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던 시기도 바로 그때부터 었던 것 같다. 중국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의 시작은 한중관계와 중국에 대하여 더욱 전문적으로 배워 보고 싶게끔 영향을 끼쳤고,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진학으로 이끌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은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 그리고 국제안보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중국 관련 커리큘럼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대는 본교에서 국제학으로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중간에 Campus Asia 프로그램으로 중국 푸단대학교에서 행정학으로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끔 하여 앞서 언급한 아쉬운 점을 극복을 넘어, 고려대 진학에 있어서 또 다른 매력적

인 요소로 승화시켰다. 진학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고려대는 일본 고베대학교와도 Campus Asia 프로그램을 맺고 있다. 그럼에도 나로서는 중국이라는 배경을 가진 푸단대에 수학 할 수 있는 이점과 더불어 개방적이고도 화려한 상하이가 뿜내는 매력에서 이끌렸다. 그렇게 2학기 도중에 Campus Asia 푸단대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고려대와 푸단대 측으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중국에 도착하기 이전에 Campus Asia 합격을 스스로 취소하였다가 번복하였다. 4년 간의 힘들었던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였는데 다시 그 힘든 길을 나 자신이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 이유였다. 더욱이, 2012년 겨울에 2개월동안 학부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상하이외국어대학교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적이 있었기에 상하이를 이미 얼추 알고 있는 점 또한 이유였다. 결국, 기대감 보다 걱정이 더욱 앞서는 바람에 담당 교수님에게 푸단대를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후, 한 달 동안 유럽에서 고려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후원 받은 학술조사 프로그램에 매진하면서 이따금씩 Campus Asia 프로그램 합격을 철회한 것이 과연 잘한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

문을 던졌다. 내가 진정으로 대학원에서 배워보고 싶었던 분야는 무엇이었는지, 또 그 분야의 배경이 되는 나라에서 2개월이 아닌 1년 동안 유학생 신분으로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건어찬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 유럽의 길거리를 거닐며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었다. 결국, '실제로 상하이로 가보자' 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유럽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지 5일 만에 상하이행 국적기에 탑승, 2박 3일 간의 짧았지만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상하이 탐방은 한국으로의 귀국 전날 밤에 Campus Asia 담당교수님에게 합격취소 번복요청 이메일을 쓰기에 이르렀다.

## 중국에서의 시간 1: 처음 같았던 상하이에서의 2번째 유학

흔히, 급속도로 발전한 중국 상하이를 놓고 '천지개벽(開天辟地: kāitiānpìdì)'이라고들 칭한다.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의 상하이 푸둥에는 도시 상징으로 자리잡은 동방명주 보다는 일본회사 카시오(CASIO)의 공장이 넓은 부지에 걸쳐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치면 그때 당시의 푸둥은 서울 종로구의 세운상가 일대와 같은 분위기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삼성동과 여의도와 같이 현대식 초고층빌딩들이 즐비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중국땅에 발을 딛었던 2012년 겨울에도 중국 상하이는 당시 내 머리 속에 자리한 기존의 중국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음에 놀라웠고, 다시금 유학생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상하이를 방문 했었던 작년 여름에는 한국보다 발전된 여러 모습들에 되려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신선했던 충격은 유학생으로 중국에서 1년동안 살아가며 수 차례 지속되었다.

'공유경제'의 새로운 기치 아래, 상하이 길거리에는 저마다 QR코드가 하나씩 부착된 공유자전거와 공유차량이 즐비했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를 위하여, 다른 선진국들이 현금에서 신용카드, 그리고 모바일

결제방식으로 흘러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국은 현금에서 바로 모바일 결제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길거리 즉석 볶음면 가게에서부터 고급 레스토랑과 같이 어디에서든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로 재화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은 나에게 무척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그러한 중국인들의 일상은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에서의 나의 일상으로도 자리 잡았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의 혜택인 중국정부 국가장학생 수혜의 일환으로 매달 지급되는 3,000위안의 장학금은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로 손쉽게 사용이 가능했다. 그리고 QR코드를 모바일로 인식하여 이용한 시간만큼 가격을 지불하면 쓸 수 있는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교를 하고, 하갯길에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 계산한 길거리 즉석 볶음면과 밀크티를 사먹었다. 음식배달문화는 한국만큼 잘되어 있는 곳은 없다는 생각에서 탈피하게 만들어준 중국의 모바일 음식배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국내 대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더욱 편리한 위챗과 같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의 오늘날 일상은 2012년 상하이에서의 짧았던 어학연수를 통해 접했던 당시와 달라도 너무 달랐고, 그 짧았던 어학연수를 통해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품고 Campus Asia 합격취소를 부탁 드렸던 한 때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 중국에서의 시간 2: 復旦, 아침이 다시 온다

푸단(復旦), 우리식 한자 표기로는 '복단'으로 그 뜻은 '아침이 다시 온다' 라는 뜻이다. 이는 '늘 오는 아침처럼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해야 한다' 는 숨을 뜻을 내포하고 있다. 푸단대에서의 지난 1년을 놓고 보면, 푸단대는 그 이름에 담긴 뜻을 품으며 중국 최고명성을 가진 학문기관 중 한 곳으로의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였다.

민족다양성으로는 세계 최고로 꼽히는 호주에서의 학부시절에서도, 외국인 비율이 높은 고려대국제대학원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푸단대의 외국인 비율을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가령, 첫 학기에 이수하였던 ‘Chinese Politics’ 수업에서는 학생 수가 31명이었지만 그 학생들의 출신국가 수는 무려 16개 국이었다. 중국에서 중국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음에도 중국인 학생의 수가 5명이 채 되지 않는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아시아와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표현 그대로 세계 곳곳에서 온 학생들이 중국정치와 사회가 발전해온 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국의 사례를 빗대어 토론하는 모습은 이제껏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 역시 함께하며 학문을 단순히 받아들이기 보다 그 내면을 연구할 수 있어서 또한 만족스러웠다. 이와 같이 푸단대에서 1년동안 이수하였던 대다수의 교과목에서 누릴 수 있었던 흥미로웠던 수업분위기는 이전과 달리 토론을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지금의 내 자신이 있게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푸단대에서의 1년을 돌아보면, 푸단대는 Campus Asia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재학생들의 대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한 점 또한 긍정적이었다. 푸단대의 지원으로 하여금 학생들은 교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었고 또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푸단대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였다. 교내에서 학문으로써 중국을 배우는 것을 넘어 상하이 도심과 타 지역의 유적지 및 명산으로의 필드 트립은 내가 중국을 비로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특히, 학생들의 중국 국내외 포럼 등에서 능동적인 역할수행을 위하여 출결지원과 항공비 및 숙소 지원 등으로 독려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지원을 통

해, 개인적으로 지난 2월 일본 고베대학교에서 개최한 ‘Campus Asia Kick-off Symposium’과 같은 한중일 대학원생 국제포럼에서 푸단대 측의 대표발제자 중 한 명으로 평소 관심을 두고 있었던 연구에 대하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4월에는 서울대에서 주최한 ‘한반도 통일정책포럼’에서 청년토론포널로 선 발되어 연단에서 우리나라 전직 외교부 및 국방부 장관님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6월에는 동북아시아 역내 주요포럼으로 자리잡은 ‘제주포럼’에서 역내 안보 및 기후를 주제로 한 세션들에서 내외신 보도자료를 전달 작성하는 보고관으로 활동 할 수 있게끔 푸단대 측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주었다.

‘늘 오는 아침처럼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하라’는 푸단대의 뜻과 같이 푸단대에서의 지난 1년은 푸단대의 선진적인 수업형태뿐만 아니라, 그 수업에서 수학하였던 이론들이 실제 필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동북아시아 역내 다양한 포럼에서 포지션을 맡고 능동적으로 참석하여 진정으로 ‘연구’ 할 수 있었기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문적인 경험은 동아시아 국제정치학 학자를 목표로 두고 있는 나에게 소중한 인생의 자산이라 또한 생각한다.

## 보다 나은 Campus Asia를 위하여

Campus Asia 프로그램은 아시아를 이해하고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젊은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10년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 재작년까지의 시범운영을 통해 3국 대학생 1,900여명이 교류하게 되면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한중일 대학 교류 프로그램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잡았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더 많은 한중일 학생들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중일의 문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전문분야 또한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를 통해 Campus

Asia 프로그램은 아시아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교류 플랫폼이자 동아시아 교육공동체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한중일 세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의 향후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파견한 학생들과 파견 온 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후속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견지된다. 이는 단순히 사업단 내의 단순 실무자 사이의 연락망을 통한 행정적 지원 차원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의 이해도가 높은 실무자 급 이상의 포지션 설치를 통한 지원을 뜻한다. 푸단대의 경우에는 Campus Asia 프로그램의 담당자와 실무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낮았으며 학부 행정격무로 인하여 파견학생들을 대상으로 잦은 행정실수를 자아냈다. 푸단대에서 제공하였던 프로그램 공식가이드북은 원본과 번역본 사이에 실수가 있어 혼동을 주었지만 그보다 더욱 불편했던 점은 담당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세였다. 이외에도 푸단대에서의 1년 동안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술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고려대 측의 파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원은 사실상 미비함에 아쉬웠다. 그에 반하여, 같은 사업단에 속한 고베대의 경우에는 교내 Campus Asia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부서 관계자들이 파견 한 학생들과 파견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심한 행정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난 2월 고베대에서의 포럼 참가를 통해 목격할 수 있었다.

비슷하면서도 서로 색다른 문화를 배워 나가며 그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혼동과 행정착오 등은 자칫 Campus Asia 프로그램 참가학생들이 프로그램 관심학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앞서 우려감을 심어주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타 학생들이 제시하는 개선사항이 실제로 수용 된다면, 본 사업으로 커짐에 따라 더 많

은 학생들이 Campus Asia 프로그램의 수혜를 누리게 된 것과 같이 외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실 또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Campus Asia 프로그램이 유럽대륙을 아우르는 ERASMUS 프로그램과 같이 범 아시아를 아우르는 대학간 교류프로그램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 중원에서 답을 얻다

중국에 대하여 막연한 호기심을 품고 국내대학원을 진학한 나에게 Campus Asia 프로그램은 중국 현지에서 중국에 대한 '읽'을 넘어 '삶'으로 느끼게끔 해주었다. 지난해 여름, 기대감을 품고 중국 상하이에 발을 딛기 전에 읽어왔던 중국의 정치, 사회 및 문화에 관한 최신 서적들은 푸단대에서의 1년 동안 때로는 일상으로, 또 때로는 어느덧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나에게 다가왔다. 그만큼 중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거대하였으며,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국경절 연휴와 방학에 틈틈이 하였던 중국 국내여행을 통해 그 거대하고도 빠른 변화의 물결이 이제는 해안가를 넘어 내륙 구석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는 것 또한 목격할 수 있었다. 중국사회의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Campus Asia 유학생으로서 주인공인 중국인들과 함께 지켜보고, 느껴볼 수 있었음에 정말 행운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더욱 큰 행운은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 내가 앞으로 진정 어떤 부분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이다. 그저 순전히 공부가 좋아서 진학한 대학원에 들어와서 향후 진로를 고민하던 본인에게 이번 Campus Asia 프로그램은 중국에 대한 학문적인 호기심과 호감이 커지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을 전문성으로 두는 양국의 국제정치학계는 일부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끌고 있는 블루오션에 가까운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향후 본인의 진로를 중국으로의 박사과정 진학을 통하여 한국의 국제정

치학계와 중국의 관변 국제정치학계를 잇는 학자가 되고자 마음 먹게 되었다.

앞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보냈었던 유학생생활에 대한 힘들었던 기억으로 말미암아 Campus Asia 프로그램의 합격을 취소했던 불과 1년 전의 나와는 달리, 이렇게 해외 박사과정 진학을 스스로 염두하고 있는 지금의 내가 있게 한 원동력은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으로서 중국사회의 발전을 자국의 발전에 대해 자신감 가득한 중국인들과 함께 지켜보고, 어울리고, 또 즐기면서 어느새 나의 몸에도 스며든 중국인 그들의 자신감이 아닐까. 박사과정으로 다시 진학하게 되었을 때의 중국사회는 또 얼마나 달라져서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지, 또 나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지에 대하여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 큐슈 가을



장려

로목단 부산대학교 건축대학  
(사업단 : 부산대 - 동제대 - 큐슈대)

어느덧 가을이다. 밤마다 요란하던 매미소리도 어느새 조용해졌는지 울긋불긋 단풍만 곱게 물들고 있다. 스텝들의 도움을 받아 맘 흘려 짐 나르며 입학한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일본은 '사쿠라의 봄, 단풍의 가을'이라 했는데 과연 그럴듯하다. 요새는 휴일이면 다들 단풍 보러 다니느라 급급하다. 사실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에 지원서를 넣을 때 만하더라도 딱히 내세울만한 이유는 없었다. 가볍게 내린 결정이라 여행에서 체험 못했던 일본의 일상생활을 느껴보면서, 일본 구석구석을 세세히 둘러보는 것도 좋을 듯 싶었을 뿐이다. 일본은 체계적으로 잘 정비된 나라여서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의 신청단계는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었다. 양측 학교의 선생님들 모두 열성껏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아들놈이 달린 몸이라 막상 오고 나니 가슴 치며 남편의 배웅을 마다하던 때가 아니었다. 단기 여행으로 일본은 수차례도 왔건만 시작은 예상외로 어려움도 많았다. 아마도 아들이 함께 와서 각별했을 수도 있었지만 은행계좌의 신청으로부터 핸드폰 신청에까지, 모든 일에 철두철미한 일본인들의 철벽같은 규제와 성미를 이번 기회에 든든히 맛본 셈이다. 그들은 허리 굽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더라도 규제에 어긋나는 일들은 티끌만치도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꼼꼼히 채워 온 사회적 시

스템의 완벽함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신감에서 오는 고집스러움이라 할까, 융통성 없어 보이는 그들의 딱딱한 성미에 머리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아들이 다니는 일본 학교에서는 요금납부로 지정된 은행의 규정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일 년 미만이면 계좌신청이 불가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모두 좋게 끝을 맺었지만 소소하면서 반복되는 번거러움은 다소 불편함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그래도 얼렁뚱땅 넘겼으나 숙소와 학교의 거리가 먼 것은 다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듯싶다. 버스 요금이 만만치 않은 것도 있지만 버스 노선이 에둘러 가게 되어 있어서 길에서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별수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했지만 매일같이 왕복을 거의 한 시간씩 한다는 것은 쉽지만 않았다. 특히 겨울날 땀치는 추위를 무릅쓰고 낯선 이국땅을 누빈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만 않았다. 이 나이에 웬 고생을 사서 하는가라고 자문하는 마음부터 앞서 큐슈에서의 교환 생활은 스스로 의문을 한가득 품은 채 시작되었다.

큐슈대의 하코자키 캠퍼스는 오래되어 철거를 앞두고 있다. 새로 건설된 이토 캠퍼스도 이미 부분적으로 사용 중에 있어 학과별로 이전철차를 밟고 있다. 건축과는 아직 하코자키 캠퍼스를 이용하고 있다. 처음 건축학과로 찾아갔던 날, 교정의 황량함에 흠뻑했다. 이전

중인 캠퍼스라 짐작은 했지만 잡초가 무성하고 폐허 같아 생각했던 것 이상의 모습이었다. 창문이 반쯤 날라간 곳도 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공격을 피하고자 얼룩덜룩 칠해 놓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었다. 어떤 곳은 무성한 넝쿨에 뒤덮혀 정체를 알 수 없는 곳도 있었다. 물론 중간중간 새 건물도 끼여 있었지만 대부분은 오래 된 낡은 건물이었다.



그러저럭 입학 절차를 마치고 수강 신청도 완성하고 본격적인 교환학습이 시작되었다. 국제학생을 위해 마련된 특별수업 중에서 'Theory of Sustainable Architecture and Urbanism'는 여러 교수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분야별로 최첨단의 지식을 강의해주신다. 뷔페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맛보듯이, 한꺼번에 여러 교수님들의 풍채를 읽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 신청을 했는데 역시 기대이상이었다. 영어실력이 부족하여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주제별로 다루는 내용이 생생하고 교수님마다 특별한 수업 방식이 흥미롭기도 하였다. 특히 교수님들마다 알차게 준비하신 강의 내용에 감동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수업을 앞둔 아침이 되면 강의를 기대하는 마음이 한결 더해지면서 설레이기도 하였다. 먼 길을 마다하고 들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니 항상 남 먼저 도착해서 앞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였

다. 차츰 생활도 익숙해지고 숙소로 오가는 길도 멀다고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는 수업시작 삼십 분 전에 교실에 도착하곤 하는데, 그럴 때면 때마침 수업준비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부딪치게 된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교수님들의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항상 학생들이 수업준비를 미리 체크해드리고 학생들이 교수님을 대기하는데 익숙하여 이런 풍경은 낯설면서도 감사했다.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교육에 열중하는 이런 모습은 사랑스럽기도 하였다. 하루는 비가 많이 와서 대부분 학생들이 지각을 하였다. 나는 자전거를 포기하고 버스를 택한 덕분에 지각은 면했지만 겨우 수업시간을 맞추게 되었다. 황급히 교실로 뛰어갔더니 거기엔 교수님 한 분만 계셨고 오신지도 오래되어 보였다. 한참 지나서야 비에 다 젖은 몸으로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교수님은 수업 내내 전심을 기울여 강의에 열중하셨다. 그날 나는 이토록 황량한 교정에서 큐슈인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본 것 같았다. 큰 비에 불구하고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도, 비에 젖은 몸으로 수업을 끝까지 견지하는 학생들도 모두 그런 힘을 받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본사회의 성향과는 다른 측면을 느낀 것 같다. 예의를 강요하고 전통 사상이 뿌리 깊게 배겨있는 민족임에도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상호의 인격에 대해서는 무한한 존중을 보여주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자신과 함께 학문을 연구하는 동료인 듯 존중해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적극 나서서 도와주셨다. 연구실도 자유로우면서도 학업엔 엄밀히 몰두하는 분위기다. 멤버들은 각자의 연구를 독자적으로 행해가고 있었지만 따뜻한 정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세미나는 주 2회로 진행되지만 사정에 따라서 3회로 진행될 때도 있었다. 멤버들은 내용이나 순서의 제한없이 임의로 발표를 한다. 학문에 엄격하시던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만큼은 자유분방하게 진행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세미나는 3시



간씩 진행 될 때도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고 교수님께서 다루는 지식분야에도 조금씩 다가서게 되었다. 드디어 의혹이 풀리면서 이번 연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느끼고 있다.

모든 면에서 학생들을 존중해주고자 하는 큐슈대의 노력이 가슴 깊게 와닿는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큐슈대로 교환을 온 학생이든, 정규 입학 학생과 똑같이 아낌없이 배려해주셨다. 때때로 부조리한 부분들도 있지만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았다. 입학 첫날, 기숙사 방에 배치된 테이블이 부피가 크고 낡아서 교환을 신청했었다. 숙소가 1층이고 가족룸이다 보니 싱크대가 막힐 때도 있고 전등이 나갈 때도 있고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숙소에서는 신속한 대응을 보이면서 고맙게 마무리해주셨다. 처음 큐슈로 오던 날, 애 달린 아줌마라 누구보다도 짐이 많았다. 게다가 항공운임의 규정 하에 되도록이면 많은 물건을 갖고 오고 싶어서 짐들은 캐리어에 넣지 않고 종이 박스에 담았다. 그러다 보니 스태프들이 땀 흘리면서 옮겨주던 에피소드도 있었다. 스태프들은 입학이 확정되는 날부터 연락되어 여러모로 세세히 도움을 주신다. 고마운 이들 덕분에 큐슈생활에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큐슈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난류를 감지할 수 있었다. 와서 한주일이 좀 지난 어느날 새벽, 갑자기 눈도 아프고 머리가 쭈셔져서 잠에서 깬다. 눈을 비비며 화장실로 갔더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 두 눈 모두 빨갭게 충혈 되었고 눈은 계란을 얹어 놓은 듯 부어있었다. 항상 예민했던 눈이었지만 이처럼 붓고 아픈 것은 처음이었고 영문 모르게 갑작스레 들이닥친 상황이라, 그것도 낯설은 곳이라 당황스럽기만 했다. 본능적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한창 술판에서 떠돌고 있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다. 아들은 짹꼬 코골며 자고 있었고 함께 온 동료들로부터 도움 받을 처지도 못 되었다.

이대로 여기서 눈이 멀어 가는 게 아닌가는 생각에 떨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자는 아들을 돌려놓고 어디로든 가 보려니 앞길은 캄캄하기만 하였다. 겨우 진정된 마음으로 오렌테이션에서 받아 적은 구급전화로 연락을 취해 보았다. 새벽이지만 아나운서가 친절하게 응해주셨다. 서투른 일본어로 설명하는 이쪽 상황을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면서 동반 가족의 여부며, 현재 위치, 낮에 있었던 활동에 대한 간단히 파악한 후 신속한 진료코스를 제안해 주었다. 진찰비의 대부분은(75%정도로 기억됨) 국민의료보험에서 지원되고 3000엔 정도를 스스로 부담했고 약값은 400엔 정도 들었다. 한국이나 중국은 병원마다 응급실은 설치되어 있지만 응급진찰을 앞둔 사전 상담시스템은 없어 보인다.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하여 환자들의 번거로움은 해소되고 가장 적합한 진료 시기에 편리하고 신속한 진찰을 받을 수 있었다. 응급진찰 상담은 의무적으로 친절히 진행되었을 수도 있지만 상담원의 불평 없는 친절한 말투는, 이른 새벽 낮선 곳에서 홀로 느끼는 쓸쓸함에 큰 위로가 되었다.

투박한 하카다벤을 귀에 익혀가며 말로만 들던 문화적 충격은 매일 똑같았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직도 반바지를 입고 등교하는 애들이 수도룩하다. 초등학교에서는 애들이 하교 후의 활동시간과 장소마저도 감독하고 있었다. 겨울철에는 저녁 5시전으로 집에 돌아갈 것을 강요하고 있었고 5시 이후로는 부모님의 동반 없이는 초등생들의 외출이 금지되어 있다. 초등생들이 폰을 갖고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의복차림에도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규정이 있는 편이다. 학교는 수업보다도 사회 체험 활동이 많다. 또 급식이나 교실 청소 등 학교생활의 모든 것을 학생들 스스로 진행하게 되어 있다. 사회적으로도 '셀프'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트에도 특별한 상품구역 말고는 스스로 알아서 구매하게 되어 있다. 시식을 권하는 판매원들이 많은 한국 식 마트와는 판이한 광경이었다. 보통은 시글벽적인 면

세점에서도 볼 수 없는 조용히, 묵묵히 돌아가는 일본식 일상인 것이다.

연수도 이제는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은 도시환경을 다루어 가야 하는 학생이 여러 나라에서 여러 학교의 여러 교수들과 함께 여러 문화와 지식을 접해보게 되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큰 이바지가 되는 참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안목과 식견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의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와 생활을 떠나서 건축을 담론한다는 것은 더더욱 무의미 할 것이고.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은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다 많은 좋은 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마련해주고 싶은 희망에서 시작

된 만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뜨거운 열정 속에서 나날이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학생들은 이러한 터전을 발판으로 도전한다면 결국은 풍성한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은 학우들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경험담을 체험후기로 전해본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이번 프로그램의 여건을 마련하느라 전력을 다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너그럽이 품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교환연수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좋은 성적으로 부산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한다.



# 북경, 그리고 세계와 나를 경험하다



김민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업단 : 성균관대 - 나고야대 - 인민대)

## 경험(經驗)하다 :

- ① 실제(實際)로 보고 듣고 겪은 일
- ② 감각(感官)을 통(通)하여 얻은 지각(知覺)
- ③ 또는, 그 지각(知覺)으로 결합(結合)된 지식(知識)

경험이란 단어를 사전에 치면 나오는 뜻이다. 내가 2017년 2월 17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약 5개월 간 북경에서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들, 그리고 그를 통해 지각하게 된 것들과 얻게 된 지식들은 내 안의 경험 세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큰 축을 이루게 되었다. 중국에서 보낸 한 학기는 나에게 정말 큰 의미를 지닌다. 2016년에 학생회장 자격으로 중국 청도에 3박 4일간 리더십캠프를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단체 관광 위주였고, 이렇게 스스로 해외에 나가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일상을 보낸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 외국인과 외국어를 사용하며 '진짜 대화'를 해본 것도 처음이었다.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지각변동과도 같은 큰 변화였다. 특히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일들에 의미 부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경험이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다.

## 1. 첫 번째 경험: 첫 해외 일상

이미 언급했지만, 나에게 중국 북경에서의 생활은 내 생애 최초의 외국 생활이었다. 태어나서 가장 멀리 가본 곳, 가장 낯선 곳이었다. 다행히 지난 학기에 미리 가있던 친구들과 함께 갔던 친구들 덕분에 외로움에 떨며 지내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 언어 문제로 말이 제대로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게다가 내 중국어 실력은 겨우 날씨를 묻거나 길을 물어보고도 대답을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의 그야말로 3살짜리보다 못한 실력이었다. 그나마 조금 할 줄 아는 영어도, 일반 중국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중국어 실력 때문에 초반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이었다. 글자를 몰라 밥도 제대로 못 골랐다. 그래서 도착한 이튿날부터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메뉴 공부였다. 학생식당에 있는 메뉴판을 사진으로 찍어 기숙사에 돌아와 한자를 찾아가며 뜻과 발음을 공부했다. 밥을 먹고 싶으니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메뉴를 주문했는데 성조가 틀려 다른 음식이 나온 적도 여러 번이었다. 이십대 중반이 넘어서 이런 경험을 할 줄이야. 그 때는 당황도 많이 하고 식은땀도 여러 번 났지만, 지금 생각

하면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공부들은 자연스럽게 내 몸에 남게 되었다.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결국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처럼 편해져 갔다. 이제는 어떤 곳을 가도 잘 적응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 2. 두 번째 경험: 외국어에 대한 인식 변화

중국에서 일상을 겪으면서 내가 경험한 또 한 가지 변화는 바로 내가 외국어를 대하는 자세가 변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배우는 영어는 대부분 시험이나 입시 위주의 독해와 문법 공부였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을 위해서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재미를 느끼지도 않았다. 그리고 외국인을 만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성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외국에 나와 ‘일상 속’에서 소통의 도구로서 언어를 접하고 나니 언어가 정말 흥미롭고 계속 배우고 싶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영어를 영어답게 배우지 못했던 것이 정말 아쉽고 후회됐다. 전공수업에서나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과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했는데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의사표현을 100% 완벽히 하지 못해 스스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반면에 중국어는 애초에 잘 못하긴 했지만, 시험공부를 위해 배운 영어와 달리 일상 속에서 중국어를 배워 나가며 중국인 친구들의 말을 하나 더 알아듣고, 내 중국어가 중국 친구들에게 하나씩 닿을 때 마다 외국어를 사용해서 대화한다는 것의 참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영어를, 또 중국어를 소통의 도구로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되고 있고, 비록 중국만큼 외국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꾸준한 언어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꾸준함이 언

젠가는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3. 세 번째 경험: 친구 사귀기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와 그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전공 수업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중국어 수업을 하면서 영어와 중국어를 많이 썼지만 그보다 실질적으로 나에게 와 닿았던 소통 경험은 내 생애 처음으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것이었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라온 친구들과 친해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의 세상을 좀 더 넓힐 수 있었고, 막연히 가지고 있던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환상, 혹은 편견들을 깰 수 있었다. 내 외국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이해하긴 어려웠지만, 오히려 부족한 언어 실력 덕분에 서로 서로 조금씩 더 배려하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게 됐던 것 같다. 중국어가 서툰 나를 이해시키려고 귀찮았을 텐데도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해주고, 영어로 다시 설명해주던 친구들, 또 많은 중국 음식들을 알려주고 소개해준 친구들, 여행갈 때 북경역까지 따라와서 표 사는 걸 도와주던 친구들 이외에도 일상 곳곳에서 잘 지낼 수 있게 많은 것을 도와준 모든 친구들이 아직도 그립고 생각이 난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 4. 네 번째 경험: 여행의 즐거움

네 번째 경험이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경험은 바로 중국 여행이었다. 서툰 중국어 실력에도 중국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기차표를 구매해서 여행을 다닐 수 있었다. 제일 처음 간 여행은 봄 방학 때 갔던 청도여행이었다. 일 년 전에 한 번 갔지만 그때는 가이드를 앞세운 수동적 여행이었다. 그래서 사실 잘 기억도 나질 않았었는데, 이번에 간 청도 여행은 길거리의 생생함과 현지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

나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청도에서 많은 여행지를 다녔다. 5.4공원, 청도대학교, 맥주박물관 등등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게스트 하우스 바로 앞에 있던 '잔교'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마시며 바닷가를 구경하던 것이었다. 많은 것들을 봤지만 신기하게도 오히려 가장 사소한 풍경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만큼 청도의 바다는 깨끗하고 상쾌했다.

또 다른 여행지는 내몽고였다. 내몽고는 드넓은 초원에서 말을 타고, 햇볕 쨍쨍한 사막에서 낙타를 탈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했던 경험은 초원에서의 하룻밤 동안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학창시절에 12궁도와 별자리에 대해 '암기'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별자리는 왜 배울까라는 의문을 항상 가졌었다. 하지만 내몽고의 초원에서 본 밤하늘은 그 암기된 지식을 넘어서는 거대한 광활함을 가져다 주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예뻐다. 거의 세 시간을 넘게 보고 또 보면서 새벽 추위에 떨면서도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내 생애 가장 많은 별을 봤던 날이었다.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이 아쉬웠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다. 언젠가 꼭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되뇌며 잠이 들었다.

세 번째 여행지는 북경이다. 북경은 머물렀던 곳이지만 또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이고 역사가 깊은 곳이라 둘러볼 만한 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꽤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덕분에 꽤 많은 곳을 가 볼 수 있었다. 이화원, 원명원, 자금성, 만리장성 등 유명한 유적지부터 후통이나 쉰원 박물관 등 한국인에게는 약간 낯선 곳들까지...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고북수진이라는 곳이다. 관광지로 개발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중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다. 여기는 만리장성 인근에 옛 마을을 우리 민속촌처럼 재현해 놓은 곳이다. 마을 안에 물이 흐르고 있어 마치 물의 도시 베니스에 온 듯한 기분이다. 새로 지어진 곳이라 시설도

상당히 괜찮고 먹을거리도 많다. 그리고 약간 산지가 있는데, 그곳에 올라 내려다 본 경치는 정말 아름답다. 특히, 해가 지면 마을 전체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이 켜지는데 한 동안 낮을 놓고 보게 된다.

사실 그전에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 준비과정이 번거롭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해외 나온 김에 많이 둘러 보자는 생각으로 이곳저곳 많이 다녔는데, 생각보다 정말 즐겁고 재미있었다. 심지어 혼자 돌아다니는 여행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기도 했다.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는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아직 국내에서도 못가본 곳이 정말 많은데,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허락하는 한에서 꾸준히 많은 곳을 둘러볼 생각이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여행이라는 또 다른 경험의 즐거움을 일깨워준 시간들이었다.

## 5. 다섯 번째 경험: 꿈에 대한 성찰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거나 실제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머물면서 새롭게 얻어간 경험 중 하나는 바로 '꿈에 대한 성찰'이었다. 사실 캠퍼스 아시아를 남들은 다 취업준비나 시험 준비로 바쁜 4학년 1학기에 조금 무리하게 갔다왔던 이유도 스스로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서였다. 국제법과 관련된 전공을 하고 싶어서 꿈을 키워왔었지만 정작 해외 한 번 나가보지 못하고, 영어 한 번 써보지 못했던 나였다. 물론 한국에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막연히 로스쿨을 희망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짧지만 강렬한 5개월간의 외국 생활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에 휩싸였다. 막상 생활하고 공부해보니 전공으로 국제법을 하기엔 내 영어실력이 너무 깊이가 얇았고, 그 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

하지 않았다는 자책을 하게 됐다. 그래서 처음부터 냉정하게 내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치열하게 고민을 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크게 느꼈다. 여전히 영어실력은 부족하고, 중국어 실력도 모자란다. 그렇다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현실을 경험했고,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볼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그리고 조금씩이긴 하지만 좀 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나아가고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조금 막연했던 내 꿈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후회 없는 도전을 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 그래서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그 자체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고 믿는다.

## 6. 글을 마치며..

중국에서 보낸 5개월은 다른 어떤 경험보다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시간들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경험들까지 분명 내 안을 구성하던 경험체계에 커다란 한 획을 그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남들에게는 어떻게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상당히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왜 앞서 다녀간 선배들이 그렇게 추천을 해줬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보는 후배들마다 꼭 한 번 다녀오라고 강력히 추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특별한 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 ‘캠퍼스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에 정말로 감사를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캠퍼스 아시아가 더욱 발전하는데 꼭 도움이 되고 싶고, 내가 그랬듯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기회를 잡아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 From Asia to the World



Cao Hui 고베대학교  
(사업단 : 고려대 - 고베대 - 푸단대)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the market demand for human resource has also changed a lot. In order to deal with global issues without delay, and to response for international risks rapidly, the highly educated talents not only need to master professional skills, international perspectives are also very important. Campus Asia program just offered me such a chance to broaden my horizon and to establish a cooperative framework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which also allowed me to conduct my research with an open-mind.

My major in undergraduate was Japanese and also learned English as a second foreign language. After graduation from college, I participated in an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that teaching Chinese language in South Korea for about one year. Living in Korea gave me a very good chance to personally feel Korean society and culture, also contributed lots of ideas to my research plan. I enjoyed my teaching life in Korea but still have pities due to the limitation of Korean language

and the time. This is also a reason why I would like to go back to South Korea again.

I had studied in Korea University for about one year as a double degree student through Campus Asia Program. Looking back this year, it can be said that my study and life in South Korea was very substantial and interesting. This exchange experience not only enhanced my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some field studies, I also obtained a deeper understanding about the history, traditional cultural, and science development of South Korea.

My major in Kobe University is Education Economics, at the meanwhile in order to broaden my professional field, I selected International Commerce as my second major in Korea University . During this year, I took totally eight courses including International Business, World Politics, Japanes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Conflicts, East Asia in War and peac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Economic Integration and

Thesis Research. It can be seen from the above that these courses covered international relations,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trade and many other popular topics all over the world.

Although I selected a different major with Education Economics in Korea University, the knowledge of the two majors can complement each other very well since economics and international commerce share lots of related topics. Moreover, in GSIS of Korea University, you can not only study from the teachers, sometimes you can also study from other students. As you know, Korean university has lots of international students from worldwide, and they may have totally different educational backgrounds, and they speak different languages. For me, I feel like that I obtained lots of new thoughts by exchanging ideas with students who are from different countries or belong to different majors.

Of course, in addition to the promotion of professional knowledge, some meaningful field studies also left me deep impressions. Last winter, I took part in a field study in JEJU island. In order to learn about the real Korea personally, we visited lots of famous places, such as the Camellia Hill, the GANGJEONG Village, the JEJU April 3 Peace Park, the JEJU Eco-land, and the SEONGSAN Sunrise Peak. I learned about Korean history and culture from everywhere, but I was most impressed by visiting the JEJU April 3 Peace Park. It is a peaceful human rights memorial park established in order to memory and cherish the victims of the massacre broke out from April 3, 1948. In

2014, the memorial day for the victims of 4.3 massacre was designated as the national statutory anniversary, which means that the government promises it will not happen again to bring the disaster to the people. In my old impression, JEJU island is a famous resort, so-called “South Korean Hawaii”, but now I recognized it as the “Peace Island”.

In the spring of 2017, I also participated another field study in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which is located in DAEJEON. The scientists of the KAERI showed us some latest robots for developing nuclear energy, and explained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Korean atomic energy research. I was very impressed by those huge machines and cutting edge technologies. Through this visit, I personally felt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Korea. Although, it seems like the science area has little connection with our research, it helps us to know an all-sided and different South Korea. This is also an attractive part of Campus Asia Program that you always gain much more than you expected.

After the one-year study in Korea University, I not only successfully completed all the courses and master thesis, but also got a chance to submit my thesis to one Korean academic journal. From my experience of this year, it can be said that the Campus Asia Double Degree Program offered me various chances to improve my professional knowledge and broaden my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as well as expanded the



possibility of my future career plan. It seems like that I got a chance from Kobe University to participate the double degree program in Korea University, and then I obtained more chances for my future from Korea University. I think expanding one's future possibility is the most meaningful point of this program based on my own experience. For the future applicants, I'd like to say that your campus is in Asia, but your future could be around the world.

# Final report



Zhang Xin 북경대학교  
(사업단 : 연세대 - 오사카대 - 칭화대 / 북경대 / 상해교통대 / 천진중의약대)

The program is so great, and the experience of the 14 days are amazing and unforgettable. I would really like to share my experience in these days.

The theme of 2017 CAMPH workshop is Global Public Health Development Strategy in Aging Society. As China is gradually entering aging society, I do think the development strategy under global perspective is so important, which give us guidance on further policy making and health promotion. In these 14 days, we spent most of our time taking courses about medical laws and ethical settlement. The courses that interest me most were the comparison of medical laws in different country, ethical problems in future and the shifting from MDGs to SDGs. There were complex and comprehensive medical law system to protect doctors and patients, as well as thoughtful arrangement for consulting. The visit towards KOIHA was really impressive. The ways of solving medical disputes in Korea and China is different. Although we all have similar law systems

in this area, but before all law procedures, Korea has a serious consult for patients and doctors, and those public health workers who are medical law majored are in charge of this kind of issue. In my opinion, this arrangement is really considerate, and it can help lawyer, patient and doctor all to understand the problem better and bring more opportunities to solve problem. Ethical problem was another topic we often discussed. Technology changes our life, and it brings more possibilities in medical areas. Gene trials and AI treatments has so many benefits compared with old detective method or artificial treatment. However, it also brings many interesting ethical problems. When we were taking class, the teacher asked us questions like "Are you agree to give your gene for experiment", "Do you agree to give participants their ownership in a gene experiment" or "How should we treat an AI doctor and the AI doctor's patients". Those are questions we barely never thought about before, but when we saw different people holding different opinion on these

problems and seemed to be really reasonable, we started to doubt whether we should support it or disapprove it. The course showed us a wide view of future which is full of possible, on the other hand, has many potential problems as well. Although we can't answer these question now, but I think it is our generation's duty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most impressive activity is APACPH conference. It wa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I felt so lucky to attend Ban Ki-moom's speech. I liked his speech so much, and what I'm so agreed with him is that as a public health worker, we should always care about what happen in this whole world. Nowadays countries are so connected, one countries' issue is not only its problem, it is every countries' issue, and we should all get together to solve it. In the end of his speech, he also said, "As I have told many students of public health, students should have global vision, and engage in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ng". It's short and simple, but it means a lot. Most of speech in APACPH conference is related to MDGs and SDGs. We are in the trans period from MDGs to SDGs. In this conference, many professors claimed their opinions about how to face unfinished goals and new-settled goals. I think all of us agree that health has a central place as a major contributor and beneficiary of sustainable policies. We public health workers ought to create healthier societies and promoting wellbeing for everyone worldwide.

Beside all these courses we have taken, we visited many interesting places and eat a lot of

delicious local food. So this workshop is also a culture communication. We have students from 3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We were so amazing about how good we got along with each other. We visited DMZ, Heyri Art Village, Soul Tower, Sungnyemun and Gyeongbokgung Palace in Soul; we visited Taejongdae Park , Haeundae, Gamcheon Culture Village in Busan. We saw the incredible combination of ancient time and modern time; we tasted delicious local food and various kinds of non-Korean food. It's a great time to meet so many friends. We felt so grateful for our Korean teachers' thoughtful arrangement. All the precise, modest, friendly characters are what we should always learn and keep.

How time flies. It's hard to say good-bye. If other students want to take a deep visit to Korea and learn some useful knowledge from experience of different countries, this workshop is of the top of my recommendation.

My major is health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From this workshop, I find that there are some areas we ignored should be paid more attention on. There are many projects about inventions on health habits, but through all the visit of different medical departments, I think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on health status of medical workers and education of medical laws for citizens. Compared with medical workers in Korea, I think somehow medical workers in China bare more pressure from work, and how to ensure a healthy working environment and a comprehensive legal protection for them is

essential. The visit towards different medical department in Korea gave us some good examples, although we have different situation of nation, different ways of solving same problem in different countries are good hints for us.

There were communication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nd it was really interesting when different culture exchanged. Therefore, the second thing I have learnt is that open your mind and communicate more. Communication is so important, and it seems to be the only way to break misunderstanding and lead us to new cooperation. I'm really happy to meet friend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I have learnt different culture of Japan and Korea. We exchanged our opinions, which let us understand more and gave us inspirations for further studies.

The most important thing I had learnt is global vision. All the classes we took and all the conferences we attended showed us countries are so connected, and it is every country's duty to share good experience and solve problem together. When we think and talk, global concern should always be in mind.

# 900시간의 동경공업대학 비행문 친구



장려

김재훈 KAIST  
(사업단 : KAIST - 동경공대 - 칭화대)

## 서론

아마 이 글을 읽을 분들은 동경공대에서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이시거나 혹은 프로그램 참여 최종합격을 통보 받고 이전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이실 거라 생각된다. 그래서 본인은 이 후기에 개인적으로 느꼈던 생각이나 감상 등을 담되 읽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약간의 정보들을 담았다. 한 사람이 3개월에 걸쳐 생활했던 내용을 모두 담기엔 부족했지만 흥미롭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 시작 그리고 나의 숙소

2017년 1월 6일 금요일. 겨울치고는 따뜻했고 심지어 약간 덥다는 느낌이 들었던 바로 그날. 나의 3개월간의 도쿄생활은 시작되었다. 약 2시간 10분 걸려 도착한 나리타 제 3터미널은 굉장히 작은 여객 터미널이라 마중 나온 일본측 담당자 분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매니저 분께서는 본인이 3개월동안 거처할 숙소 인근의 Tama-plaza station (타마플라자 역)로의 직행버스 티켓을 구매해주시고 탑승 정류장까지만 안내를 해주셨다. 또다시 약 2시간 가량의 이동, 그리고 도착한 타마플라자 역. 타마플라자 역 인근은 일본에 오기 전 들었던

것보다는 비교적 조용하고 번잡하지 않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내가 머무를 숙소는 타마플라자 역 기준으로 도보 약 10~15분 걸리는 곳에 위치했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지도를 보면서 숙소를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숙소는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일본 내에서 꽤 유명한 Oak house란 그룹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주거형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의 쉐어하우스가 이미 자리를 잡고 운영되고 있었다. 특이하게도, 이 숙소의 경우 미주 및 유럽권 등 서양인들의 거주 비중이 비교적 높았는데 (약 30% 수준) 그 이유는 (주로) 서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 어학원의 기숙사로 쓰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본인을 제외한 아시아권 사람들 (나와 같은)의 거주비율은 약 10% 수준으로 비교적 적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적어도 나에게 있어선 불편함을 야기한다거나 혹은 심심함을 느끼게 하진 않았다 (부엌이나 라운지에 가면 항상 자리잡고 있는 무리들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다). 한편, 내가 배정받은 1인실 숙소는 기대 이상으로 매우 좋았다. 오기 전 홈페이지 상으로 사진만 확인했을 때는 방이 너무 좁지는 않을까 혹은 비좁지 않을까 걱정을 했

는데 막상 와서 눈으로 확인하니 일단 히터가 잘 작동되고 외풍이 없어 실내 공기가 춥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고 방 크기 또한 냉장고 및 책상, 침대 등이 있음에도 혼자 쓰기엔 부족함이 없이 넓었다. 게다가 테라스 및 실외 빨래 건조대도 있어서 빨래 및 건조도 걱정이 없을 정도로 매우 쾌적한 주거환경이었다. 이 후기를 읽고 겨울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인 후배 학생들을 위해 참고를 드리자면, 일본, 특히 도쿄(인근 포함)의 겨울은 눈 보기 거의 어려울 정도로 확실히 따뜻하다. 그러나 햇빛이 들지 않는 실내의 경우에는 조금만 가만히 앉아있어도 쌀쌀함을 넘어 추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난방은 우리나라의 온돌식 난방과 다르게 전적으로 히터(시스템 냉, 난방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쿄 내에 있는 오래된 집들의 경우 콘크리트 외벽이 굉장히 얇거나 목조식인 경우가 많아 난방효율이 지독히 떨어져서 실내 보온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 겨울을 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전기장판을 가져올 것을 강력추천 할 정도로 오래된 집들의 경우엔 잠자리 추위가 상당한 편이다. 하지만 이 숙소의 경우 이러한 걱정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따뜻했기 때문에 만약 동일한 곳에 숙소배정이 이루어진다면 주거환경적으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방에 간단히 짐을 풀고 생필품 구매 및 식사를 하기 위해 주변 탐색을 시작했다. 숙소 주변은 대부분이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었고, 먹을 곳과 식료품 가게 등 상점가들은 주로 역 근처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타마플라자 역 인근에 100 엔샵 및 드럭스토어가 있어서 생필품들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으나 간단히 식사를 할만한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다가 숙소가 위치한 곳은 도쿄 근교의 소도시다 보니 식사 시 주변에 있어서 처음에는 언어적으로 불편함이 상당했다. 하지만 거주기간이 늘면서 간단한 말 정도는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난 후엔 오히려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거환경측면에서는 별 다섯 개를 주고 싶을 정도로 만족했다.

추가적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정보를 남기면 내가 거주한 셰어하우스의 구조는 마치 창의학습관과 비슷하다. 1층이 주로 공동(활용)구역이고 2층~4층은 주거공간인데 각 층간 이동은 계단으로만 가능하다. 1층에는 로비, 공부방, 소형 영화관(DVD 감상실), 부엌 및 라운지,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공간, 그리고 공용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실의 경우 일본 게스트하우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인 샤워실 구조로 여성전용 샤워 4칸을 포함하여 총 10 칸이 있다. 본인이 생활했던 기간 중에서는 샤워시간이 겹쳐서 대기를 했던 적은 없었으며, 부엌의 경우에도 조리공간이 충분하였고 공부방 역시 사용 인원이 생각보다 적어서(?) 공용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애로사항 없이 생활했다. 또한 각 층에는 세탁실 및 화장실이 있으며 세탁실의 경우에는 세탁 및 건조기 및 간단한 세면 등이 가능한 수도시설이 있다.

## 연구환경

동경공업대학(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혹은 Tokyo Tech)은 역사가 약 130여년 가량된 일본의 최상위 이공계 종합대학이다. 캠퍼스는 크게 3군데로 나뉘어 있지만 내가 3개월간 출퇴근 했던 곳은 도쿄도 메구로구에 위치한 오오카야마 캠퍼스였다. 동경공대의 연구환경은 독특하면서 인상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특히,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출입과 관련해서 건물자체를 출입하는 데는 평일 오후 7시까지의 제한이 없으나 7시 이후에는 건물 출입 및 건물 내부에서 이동 시(예를 들어, 화장실로의 이동)에도 출입증(패스)을 소지하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하다. 특히, 실험공간의 경우에는 일과시간 중에도 허가된 자만

이 출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 위험 화학약품의 사용은 허가된 장소 및 허가된 드래프트(: 우리나라로 치면 흡 후드)에서만 가능하다. 나의 경우 불산(HF)을 사용할 일이 있었는데 내가 속해있던 일본의 연구실은 해당 물질을 취급/사용허가를 받은 장소 및 드래프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불산을 취급할 수 있는 다른 연구실에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하여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 공간상의 문제 등으로 전용 후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보통 해당 용액을 빌려서(혹은 털어서) 사용한 뒤 돌려주는 방법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일본의 연구실은 실험 후 폐기물 처리 시(특히, 폐액) 어떤 종류의 화학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일지로 남겨놓는 것과 같은 절차적인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위험 장비 운용 시에 2인 1조로 움직이기, 주말 실험 시 사전허가를 받고 진행하기 등 이미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잘 안 지켜지는 사항들이 이곳에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연구환경에 길들여진 나에게게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자 자기반성의 기회였다.

연구환경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일단 학교 내에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학생(구내)식당이 2 곳이 있다. 특이한 점은 구내식당이 저녁에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내식당 내 음식들의 맛은 비교적 훌륭하다. 게다가 가격도 착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메뉴가 보통 라멘, 돈가츠, 덮밥과 같은 단품 메뉴의 형태로서 구성되어있고 그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라(약간 시즌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큰 틀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먹다 보면 지겨울 때가 생긴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 괜찮은 음식점들이 많아서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특히 일본의 점집엔 '히가와리'라 불리는(지역하면 매일 바뀐다는 의미지만 의역하면 오늘의 메뉴쯤 될 것 같다) 메뉴

가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맛 좋고 질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또한 학교 주변 식당들은 밥과 국이 무한리필 되는 곳이 많았다. 원두커피를 후식으로 주는 곳도 있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생각나는 맛이다. (사진을 첨부하지 못해 아쉬울 뿐) 본인이 입이 긴 편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함께 동경공대에 파견 갔던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의 경우를 생각할 때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한 기억은 없는 것 같다(오히려 다 먹어보지 못해 아쉬울 따름).

### 연구수행

나의 경우 운이 좋게도 한국에서 수행하던 연구주제 중 하나인 인공광합성을 방문연구실에서도 수행할 수 있었다. 다만 내가 방문한 연구실에서는 고순도의 다이아몬드 합성 및 응용을 주 연구주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역시 이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료인 다이아몬드를 촉매로써 이산화탄소 환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연구실 생활을 오래했었기 때문에 실험 설계 및 수행 그리고 결과 분석 등의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지만 장비의 사용 그리고 교환학생 신분으로서 실험실 출입 및 장비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과 같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느꼈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를 합성하기 위해서 Microwave-assis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MWCVD) 장비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나는 해당 장비의 사용권한을 부여 받지 못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유독기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는 점과 해당 장비 운용에 필요한 숙련기간이 내가 체류할 시간을 넘기 때문이었다. 결국엔 나를 도와주는 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샘플을 합성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내 실험 전반의 속도결정단계가 나를 도와주는 친구의 일정에 맞춰짐으로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속하게 후

속실험 들 및 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방문연구가 끝난 지금까지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장비사용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자면, 교육 후 자율사용권을 부여 받은 장비 사용시 보통 영어로 매뉴얼화 되어있지 않아서 (대부분 일본어로 써있었다. 심지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도 보통 일본어로만 되어있다) 장비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았다. 특히, 간혹 발생하는 에러에 대한 대처나 해당 분석장비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추가기능들을 써볼 수가 없어서 결과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큰 무리가 없었고, 필요한 시약이나 재료구입의 경우 미팅시간에 교수님이나 조교님 (일본에서의 조교는 보통 한국의 조교수 (혹은 연구교수)를 의미한다)께 말씀 드리면 바로 주문해주시기 때문에 실험 서포트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웠다.

## 맺음

사실 쓰고 싶은 내용도 많고 더 쓸 말도 많은데 너무 길어지면 읽기도 힘들고 본인도 더 작성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라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 없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데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사진에 담고 살지는 않듯이 본인 역시 특별한 일상이 아닌 보통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며 먹고, 자고, 출퇴근하고 연구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후기에 올릴만한) 사진이 없었다고 소심한 변을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동경공대에서의 연구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생각으로 후기를 마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연구환경과 같은 하드웨어 부분은 세계적인 대학들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었지만 구성원들의 의식, 연구를 대하는 마음가짐 등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던 3개월이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인 소개 및 감사의 말

본인은 현재 EEWS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효과적인 인공광합성 및 물 분해를 위한 촉매 (에너지 재료) 개발을 주 연구주제로서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가을 본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자마자 서류를 준비하고 지도교수님께 허락을 얻어 프로그램에 지원하였고 운 좋게도 최종합격을 하게 되어 2017년 겨울 동안 동경공대 및 도쿄 근교에 체류하면서 매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아마도 대학원생이 학위과정 수행 중에 해외 다른 대학의 연구실에 소속되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이런 좋은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신 TKT Campus Asia program 담당자 분들 (한국의 남세진 선생님, 일본의 Watanabe Yukie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추천서를 써주신 지도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일본 동경공대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지도를 신경 써주신 Hatano 교수님, Iwasaki 조교님 그리고 나의 현지튜터로서 연구실 생활의 적응을 도와준 Akabane씨, 본인의 바쁜 일정에도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해준 Yaita 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기타 소개하지 못한 동경공대 연구실 구성원들 개개인에게도 감사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도에,  
마음을 놓는다



장려

손수민 동서대학교  
(사업단 : 동서대 - 리츠메이칸대 - 광동외어외무대)

## 열 아홉 CAMPUS Asia를 꿈꾸다

스무 살, 모든 것에 설레었던 그리고 교복을 막 벗어둔 나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첫 걸음을 망설이고 있었다. 수능을 마치고 세상 모든 걱정과 불안을 어깨에 얹힌 열아홉의 나는 여는 아이들처럼 '합격'이라는 이 두 글자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만 했던 그 때의 회의감은 스스로에 대한 책망과 불신으로 얼룩지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야만 했던 날들로 그저 흘러보냈다. 그러던 중 하루, 정말 평범하고 별다른 게 없었던 그 날. 나는 CAMPUS Asia를 만나게 되었다.

아버지 손에 들린, 형광 펜 별로 가득 찬 신문지 한 장. 첫 인상은 그랬다. 시간의 늘어짐과 벽차오르는 희열. 영화 속 한 장면의 그런 느낌과는 거리가 먼, 이룰테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라 해도 좋을 그 때의 감정은 무난한 무채색과 같았다. 그저 '어, 여기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에 사로 잡혀 신문과 블로그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까지, 관련된 정보를 찾고 또 찾기 시작했고 신선한 충격에 흠뻑 젖어있는 나를 발견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수많은 생각들로 둘러싸인 채 하루 하루를 보내던 내 손에는 어느새 동아시아학과 17학번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들어 있었고, 싱그러운 햇살과 살

랑대는 바람으로 마음은 무척이나 부풀었다. 높다란 경사를 걸어 올라가는 길, 나는 여전히 내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조금은 후회 섞인 한숨을 늘어놓았다. 그로부터 정확히 9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과거의 나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너는 후회(後會)를 기다리고 있다고.

## 우리들의 CAMPUS Asia

아시아 시대. 특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협력 체제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 각 분야에서 이뤄지는 싱크탱크 이른바 컨소시엄 체계는 동아시아 성장의 거대한 메카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짚어준 지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의 운명 공동체는 거대한 그림자가 될 수 있다. 각 국가의 문화를 다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공통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성을 억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아시아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CAMPUS Asia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 커리큘럼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Joint Campus 형식으로 진행되는 동서대학교, 리츠메이칸대학교, 광동외어외무대학교는 3, 4학년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이뤄

지는 타 학교와 달리 한 학과로서 운영된다. 때문에 본 캠퍼스인 한국 그리고 이동 캠퍼스인 중국과 일본에서의 교육과정으로 나뉘게 된다.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인 우리는 파견 전 교육으로 어학 공부(중국어와 일본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문화 및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2,3학년 때는 파견되는 이동 캠퍼스에서 해당 국가의 문화와 지역학과 같은 인문학적 지식을 탐구하고 4학년, 한국으로 돌아와 전문 교육과 해외 인턴십을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강화하게 된다. 졸업논문과 함께 TOEIC 850, HSK 6급, JLPT 1급을 모두 만족 시키면 사회로 나갈 준비를 마치게 된다. 또한 재학 중에는 GLLP(Gloval Living-Learning Program)로, 연계된 대학교의 외국인 선배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나날

6월 24일과 7월 30일, 그렇그렇 멧힌 눈물과 떨어지지 않던 발걸음은 이제 막 한 학기를 끝낸 여름방학 무렵이었다. 그 날은 눈부시게 날씨가 화창했던 날이고 뒤 이은 일정은 즐거운 여행길이었지만, 비행기의 구름 자국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 시리던 날이었다. 3월 우리는 처음 만났다. 짧은 인사 끝에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우리는 나중에서야 서로를 알아보았고, 어두컴컴한 바닷가 저 멀리 한 켠 씩 반짝이던 불빛이 다가올 무렵 우리의 필연적 동거는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서툴기만 했던 나와 선배들은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와 영어를 통해 아주 소소하고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모두가 낯선 그때의 상황 덕분에일까? 서서히 스며든 우리는 어느새 친구를 넘어선 가족이 되어 있었다. 서로에게 익숙해질 무렵 우리는 우리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같이 침대에 뒹굴거리며 과제를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속상했던 일이나 고민들을 유치원생 마냥 재잘거렸다. 과제와 시험 사이 파닥거리는 나를 맞이하는 따뜻한 기숙사에는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는 선배들이 있었고 덕분에 나는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칠 수 있었다. 2학기가 시작된 지금도 나는 선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예전만큼 매일 얼굴을 맞힐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물어나는 애정은 그대로인 듯하다. 그 리움에 잠겨 선배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다 보면 어느새 늘어난 어학 실력에 스스로 놀라곤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는 부산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3년 동안 영어와 일본어를 전공했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와 점점조차 없는 이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배울 수 있었다. ‘하고 싶은 일은 꼭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16살의 나는 이러한 다짐 덕분에 나를 끌어당기는 모든 일들에 도전했다. 외국인과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UCLA 오즈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교육청이 주관하는 어학캠프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한 적도 있다. 이렇게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접하는 일들은 언제나 내게 끌림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고3 무렵 입시에 관한 생각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러던 중 중국어는 어떠한 틀을 깨는 결정적인 역할을 맡아주었다. 그 중력과도 같은 힘은 바로 선배들과의 만남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한자 병음은 물론이고 성조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던 내가 필사적으로 중국어를 배우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미안함에서 시작된다. 선배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영어로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 중국인인 마냥 선배에게 마냥 미안하기만 했다. 어설픈 중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매번 발음을 부탁하는 것도, 선배에게 미안함 투성이었다. 그래서 나는 선배와 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어에 더 매달리게 되었다. 하루는 국제회의의 보다 치열한 통역의 현장을 마주할 수 있었

다. 수강 신청에 대해 설명하게 된 나는 왼쪽에 일본 선배 둘, 오른쪽에 중국 선배 둘 그 사이에 서서 한국어로 설명하고,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 또 중국 선배가 우리 선배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한참을 깔깔 대었지만, 한편으론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다. 2학기인 지금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중국어로 전화하는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새로움에 대한 즐거움을 되찾아갈 무렵 본격적인 '동아시아 인문학적 리더'로서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 그렇게 '동아시아인'이 된다

CAMPUS Asia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대했던 수업은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국가 사이의 여러 쟁점들을 role-play형식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처음 팀을 구성하고 주제를 고를 때에는 국가 영토 문제라든지 한참 대두되던 위안부 배상 문제 등 각국의 이해가 얽힌 매우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솔직히 겁이 났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그저 한낱 기우임에 불과했는데, 하나의 팀으로서 역할을 맡게 된 우리는 각자 기존에 속해있는 국가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사이트와 논문, 책 등의 자료에 파묻히며 열심히 준비했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단순히 한국가에서 바라 본 논란들은 해결하기 쉬웠다. 상대국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러한 role-play를 통해서 각 문제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관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음을 깨닫고 난 후 왜 이러한 문제들이 수년간 해결될 수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정신적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어느 적정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일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뿐

만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1번 비교과라는 과목으로 진행된 외부 강사의 특강들은 동아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었다. 다채로운 주제들로 꾸며진 2시간은 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권 이데올로기 한자라든지 불교와 같은 공통적 특성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나쓰메 소세키, 이광수, 루쉰과 같이 과거의 동아시아 운명 공동체라는 새로운 구상을 위해 노력 했던 분들의 이야기로도 가득 채워졌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의 이종현 사무총장님이 들려주신 한중일 협력과 청년의 역할 그리고 귀평 주부산중국총영사관님의 19차당대회와 신시대 중국외교정책은 현재의 동아시아와 미래지향적인 3개국 관계에 대해 재정립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네트워크 형성은 앞으로의 우호적인 다자적 협력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안녕 스무 살! 안녕 CAMPUS Asia!

내 방 한 쪽 벽면에는 큰 세계지도가 붙어있다. 졸업 후 훌쩍 떠나기로 한 세계 일주를 위해 고이 모셔둔 것으로 나의 버킷리스트 제 1순위이자 가장 큰 꿈이기도 하다. 작년 이맘때쯤 세계 곳곳에 대한 관심으로 지도 군데군데 내 마음을 숨겨 두었는데, 지금 내 마음은 동아시아 일대로 쏠려 있다. 내게 CAMPUS Asia는 새로운 도전에 가까웠다. 많은 고민들과 한숨으로 채워진 날도, 정신없이 과제와 시험 준비를 하던 날들도 이제 머지않아 마주할 이동 캠퍼스의 생활도 내겐 끊임없는 설렘과 두근거림을 가져다주었다. 일 년 동안 가족보다 더 붙어 지낸 한국 동기들과 처음 인연이 되어준 1학기 선배들 그리고 2학기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선배들과의 이야기는 스무 살 풋풋한 떨림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몽글몽글 피어나는 생각들과 시끌거리는 이야기들로 하루하루를 채워 간 2017년. 한 여름 밤의 짧은 유

회는 어느 덧 새로운 시작과 이별 모두를 예고하고 있다.

##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외치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언제부터 나는 수많은 별 중에 딱 저 별을 바라보았을까. 까마득히 오래, 숫자 1을 갖 졸업한 내가 스무 살의 이름으로 지낸 지 정확히 열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솔직히 어린아이의 투정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 꿈꿔와서일까 조금은 희미해진 길은 끊임없이 망설이게 했다. 그러나 지금 기분 좋은 떨림으로 가득 찬 나는 그 길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꼬꼬마 시절 나의 꿈은 외교관이었다. 세계 이곳저곳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악당을 물리치는 히어로처럼 멋있게 느껴졌다. 막연히 꿈을 꾸다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졸업하니 외교관은 더 이상 전 세계를 구하는 영웅이 아니었다. 소속된 국가의 영리를 위해 일하는 제한적 히어로였을 뿐. 그래서 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국제회의에서 뛰고 싶었다.

인종과 국경, 성별과 종교 모든 경계선에 상관없이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 이익적 관계 성립 보다 인간적 관계 맺음을 우선시 하는 그러한 관계 구축은 정치·사회적 영리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갖지만 상호보완적 WIN-WIN 공식을 만족시키는 지속적 우호관계는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게 CAMPUS Asia는 하나의 예비 무대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 이 세 국가의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된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나아가 해당 국가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경험하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나는 지금 꿈을 꾸는 과정에서 꿈을 이루고 있다.

# 더 넓게, 더 많이



장려

박완진 성균관대학교 수자원전문대학원  
(사업단 : 성균관대 - 나가사키대 - 산동대)

## 1. 지원동기 및 지원절차

올해 나이 31살(87년생), 늦깎이 학생으로, 늦은 나이 학업으로 다시 전향한 나였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은 여태껏 누려보지 못한 사업의 일원 중 하나였다. 더군다나 국내가 아닌 국외, 그 중 양국간의 협력 및 교류가 어느 국가보다 잘 구축되어 있고 활발한 중국 혹은 일본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임이 틀림이 없었다. 다년간 쌓인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동기가 지금 내가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체험수기를 쓸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해 주고 있다. 아시아 선도 국가인 한중일 3개국간의 협력 및 교류는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잘 구축되어 있었다. 그렇다 보니 지원절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생각보다 없었다. 교환학생을 위한 필요 및 필수 서류가 몇가지 요구되는데 특히 필수적으로 비자 신청 및 발급, 건강검진서(Physical Examination Record for Foreigner), 장학생신청서(Application for scholarship at SDU), 성적 및 졸업증명서(학부), 추천서, 학업계획서 등 영문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적지는 않았다. 비자 신청 및 발급은 산동대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보내주면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은 보

통 일주일정도 소요되고 X2(혹은 X1) 등급의 비자가 발급이 된다. 건강검진서는 기숙사 이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데, 산동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 장학생신청서도 마찬가지로 산동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따르면 되는데, 한가지 다른 점은 온라인신청이라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고 승인이 나면 입학허가서와 함께 입학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중국에서 보내온다. 그 외 나머지 서류들은 국내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므로 어려운 점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온라인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차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니 이 점만 고려해서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서류 준비가 완료 되면 여권을 들어 출국날짜에 맞춰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출국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면 된다.

## 2. 교육경험

내가 지원하게 된 산동대학교(Shandong Univ.)는 상당히 큰 규모의 학교였는데 중국 내 캠퍼스만 해도 무려 8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었다. 드 넓은 땅과 수많은 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규모를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 8개 캠퍼스 중 하나인 청도(Qingdao) 캠퍼스는 내가 처음 배정받은 캠퍼스였다. 국내에서

수자원대학원 소속인 나는 산둥대학교와 Campus Asia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과 토목공학 (Civil Engineering) 기반의 수업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내가 청도 캠퍼스로 배정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청도 캠퍼스는 작년에 새로 구축된 캠퍼스여서 기존 다른 캠퍼스로부터의 환경공학 학과와 토목공학 학과의 이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기존 제남(Jinan) 캠퍼스에 있던 환경공학 학과만이 이전 완료된 상태였고, 토목공학 학과의 경우, 아직 제남 캠퍼스에서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라, 학기 중 절반은 제남으로 다시 이동을 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로 되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이고 캠퍼스 자체도 새로 구축되다 보니 아직 교내 인프라 및 시스템이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지는 않았다. 이 모든 게 새롭고 처음인 (나 포함) 3명의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어수선한 분위기는 담당자들에게도 새롭고 처음이긴 마찬가지였다. 수업 진행방식은 사업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 환경공학 학과 진행방식을 따랐지만 그 외 수업 및 행사 활동은 국제부 학생 (International students)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국제부 학생들과 함께 하였다. 그 외 수업이라고 하면, 언어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국제부 학생이라면 중국어(Chinese Language)수업이 필수적 이수과목이다. 기초반 (Elementary)과 고급반 (intermediate)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물론 중국어가 처음인 나에게 기초반의 선택밖에 없었다. 수업 대상은 모든 국제부 학생 기준이라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특히 이 부분은 영어와 중국어 두가지 모두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론으로 돌아와, 전공과목의 수업 진행은 대부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내가 수자원학과 소속이라고 해서 수자원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둥대학교 환경공학 학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 주제 위주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청도 캠퍼스에서 진행한 강의는 총 4개였

고, 주제 역시 각각 다른 분야를 다루었다. 각각의 큰 주제로서 바이오 미세입자 (Bioaerosol), 음식물 쓰레기 가치화 (Food waste valorization), 대기 기후 및 환경 변화 (Atmospheric climate and environment Change), 논문 리뷰 발표 및 토론 (Paper review for presentation and discussion)이었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고, 환경분야에서 중국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분야가 어떻게 되는 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현재 연구하고 있는 주제를 소개함으로써 처음 접하는 주제일지라도 함께 소통하기 위해 소개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강의가 되다 보니 토론을 통해 연구논문 조사 및 작성에 대한 공유도 할 수 있었다. 강의는 기존 학부 및 대학원 수업 커리큘럼과는 다르게 강의 별 5주 코스였으며, 현재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이슈 및 현안을 공유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방향성 및 학과의 연구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 기후 및 환경 변화 강의는 산둥대학교와 프랑스 오를레앙(Orleans univ.) 대학교와의 교류 사업으로 인해 오를레앙 대학교의 교수가 초청되어 3주간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 강의의 경우, 이미 준비된 수업자료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토론 위주의 수업이 아니었지만 2번의 시험 (Short exam)을 통해 토론의 효과를 이끌어 냈다. 시험 문제 자체가 토론 형식의 서술형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국에서 프랑스 대학교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산둥대학교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렇게 2개월이 좀 넘는 청도 캠퍼스에서의 생활이 완료되었고 제남 캠퍼스로 이동하게 되었다. 제남 캠퍼스에서는 서예(Calligraphy)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했는데 산둥대학교 내 국제부 학생은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을 필수적으로 중시하였다. 그리고 토목공학 학과 스케줄은 6주 동안 3개의 강의와

현장조사(Investigation of Yellow River Bridge, the Reservoir and Jinan Metro)로 구성되었다. 학기 중에 수기를 작성하고 이동 후 기숙사 배정과 다양한 문화체험 및 적응 시기를 고려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스케줄로 12월 3째주부터 강의가 시작된다. 수기 제출 일자가 학기 중 임을 고려하여, 들려 줄 수만 있다면, 남은 학기가 종료되고 난 후, 남은 학기의 교육 후기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해 본다.

### 3. 에피소드

우선 나의 경우 Campus Asia 한중일 사업이 시작된 이래에 신규사업인 NLIE Project 사업단의 일원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과 중국,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점점 및 유지관리기술을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전개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프라 기술자를 대학원 과정에서 육성하는 목적 하에 구조공학분야(도로, 교량), 지반공학분야(터널), 물 환경 및 수자원공학분야(댐, 정수장, 하수처리장, 해수담수화 등)에 한정하여 인프라의 기능저하가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이라고 Campus Asia 한일중 홈페이지에 사업단 프로그램의 목적 및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에피소드 작성에 앞서, 참여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언어교육 지원과 전담 튜터 멘토링, 그리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지원됨을 이야기 하고자 한 게 서론이 길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론을 길게 설명한 것은 이 프로그램에서의 에피소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가장 만족했던 산둥대학교 내 시스템으로서 전담 튜터 멘토링을 소개할 수 있는데, 중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참여학생들에게 낯선 타국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다. 학교내외 지리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행사 참여에 있어서도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전담

으로 배치되는 튜터 멘토링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이번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산둥성 내 산둥대학교 8개 캠퍼스가 위치한 2곳의 대표적 도시, 청도와 제남(성도)을 한 학기에 모두 경험할 수 있었다. 청도와 제남 간 거리는 국내와 비교하면 부산에서 수원 정도의 거린데 알다시피 중국의 광활한 대륙은 산둥성 하나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전체 규모와 비슷하다. 문화체험을 도시를 이동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뜻밖의 행운이었다. 산둥성 내에서도 대표적으로 유명한 청도 캠퍼스에서의 라오산(Laoshan) 국립공원, 칭다오(Tsingtao) 맥주박물관, 그리고 제남 캠퍼스에서 취푸(Qufu)시의 공자 고향, 쯔보(Zibo)시의 주촌 상업 거리(Zhoucun Commercial Street), 웨이팡(Weifang)시의 연(Kite) & 고판화(Woodblock of Pictures) 박물관, 채소 재배지, 웨이팡대학교 초청 등 정말 다양하고 뿌리깊은 중국 내 문화 및 역사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내 메이저 기업인 웨이차이기업 (Weichai Power Co., Ltd) 과 신화제약기업 (Shandong Xinhua Pharmaceutical Co.,Ltd) 내 현장 견학도 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정말 즐거운 점 하나는 이 모든 체험은 국제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정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 또한 쟁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일본, 한국 등 300여명 이상의 수많은 국적의 국제부 학생들이 참여한다. 그리 멀지 않은 중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환상적이고 멋진 일이 아닌가 싶다. 여기서 체험 활동 참여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알게 된 학생은 캠퍼스로는 물론 동료로서 소통을 이어 갈 수 있다. 특히 청도 캠퍼스의 경우는 나에게 있어 특별한데, 제남의 캠퍼스들과 비교하면 청도 내 도시와 동 떨어진 지리 때문에 캠퍼스 내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이어가는 고립된 분위기여서 그런지, 제남 캠퍼스와 비교해 확연히 적은 80명 남짓의 국

제부 학생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과 함께' 서로를 의지하는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청도 캠퍼스에는 현재 대략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중 한국인은 나 포함 총 4명 밖에 없어서 한류열풍을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를 쓸 일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는 최적의 환경 조건이 아니었나 싶다. 제남 캠퍼스의 경우에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국제부 학생들, 특히 한국인들을 포함한 그 수가 훨씬 많고 도시 중심에 6개 캠퍼스가 위치하여 극과 극의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즐길 수 있다.

#### 4. 후배 참가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남은 후기를 알려주는 것보다 이 Campus Asia 프로그램 참여를 우선적으로 적극 추천하고 이용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는 Campus Asia 사업단의 홍보대사도 아닌데, 직접 교환 학생을 실천하여 느끼고 체험한 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지, 좋은 수기 혹은 홍보성 효과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이가 많아 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많아지는 것이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생각도 많아지게 된다. 과거를 더 많이 되돌아 볼 수 있고 한층 성숙된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후회의 횟수 또한 증가하는 것 같다. 어른들 말씀에 틀린 말 하나 없다고, 나 역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고 지금도 후회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다양한 후배 참가자들에게 이 확신을 꼭 해주고 싶다. 본인의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본인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본인만이 개척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남의 인생을 무시하거나 혹은 부러워하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력 없이 원하는 대가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그 노력의 정도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

축하고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경험과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지식은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하며 부족한 경험은 풍부한 경험자들로부터 채우면 된다. 1에서 10까지, 10에서 100까지, 그리고 100에서 1,000까지, 1000에서... 이와 같이 단계적인 체계들은 사람 살아가는 곳곳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사람은 평생을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고들 한다. 선택을 강요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다. 이미 과거에 선택하지 못하였고 지금에 와서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나만의 경험이 나에게 있어 정말 값지고 더 일찍 실천하지 못한 후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경험이 풍부하다' 라고 모든 이들 앞에서 소리 높여 말할 순 없지만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 만큼은 앞으로 있을 후배 참가자들에게, 경험자로서 앞으로 가질 선택의 기로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청도(Qingdao) 캠퍼스 Life



청도 공항



청도 캠퍼스 전경



청도 캠퍼스 전경



청도 캠퍼스 버디들



청도 라오산 문화체험



청도 라오산 문화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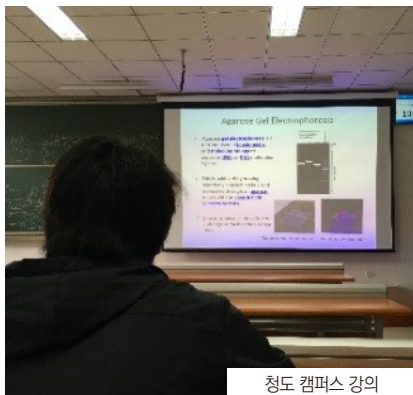
## 청도(Qingdao) 캠퍼스 Life



청도 캠퍼스 소개



청도 캠퍼스 강의



청도 캠퍼스 강의



청도 캠퍼스 Prof. Yang & Christopher



청도 칭다오 (Tsingtao) 맥주 박물관 견학



청도 캠퍼스 국제부학생 기숙사 로비

## 제남(Jinan) 캠퍼스 Life



제남 중신 캠퍼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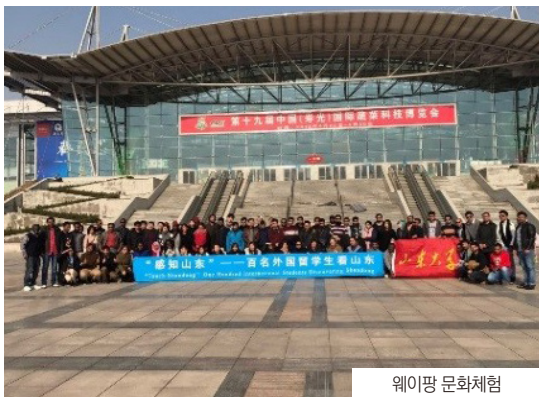
제남 중신 캠퍼스 전경 (스모그)



쯔보 문화체험



웨이팡 문화체험



웨이팡 문화체험



웨이차이 기업 견학

### 제남(Jinan) 캠퍼스 Life



웨이차이 기업 견학



신화제약 기업 견학



취무 문화체험



취무 문화체험



서예 수업

# 꿈을 찾는 여행



Zhang Yechen 광동외어외무대학교  
(사업단 : 동서대 - 리쓰메이칸대 - 광동외어외무대)

나는 예전에는 중국, 한국, 일본 3개 국가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계기로 내 인생은 바뀌었다. 삼국의 학업 생활을 통해서 전문을 넓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수업과 과제발표를 통하여 삼국 간의 오해와 편견을 풀 수 있었고 동아시아 각국의 이모저모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참가하게 된 것은 나에게 우연이었다. 나는 원래 광동외어외무대학의 조선어과 학생이었는데 우연히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대한 공고를 봤다. 그때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덜컥 합격이 되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나에게 자아를 발견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는 광동외어외무대학의 캠퍼스 아시아 학생으로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배우고있다. 한국, 일본 학생들과 교류하기 전에는 단순히 두언어를 배우고 한국과일본의 기본적인 개황만을 알아봤다. 동시에 나는 수천만 보통 대학생처럼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다. 캠퍼스 아시아에 지원했지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꼈다. '졸업후에 대학원에 갈까?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할까?'하는 고민을 하였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으로 간 후에 나는 점점 인생목표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사실 출국 전에는 인생 목표를 몰랐다가 보다 감히 꿈을 꾸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적인 인생은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다고 평범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미국 속을 헤매는 아이처럼 무력함을 느꼈다. 출국 후에 점점 나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훌륭한 학생들과 교류하여 그들은 나에게 격려를 해 주었다. 스티브잡스는 '인생이란 짧고, 우리는 곧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한한 시간을 할애해 이 일을 하려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치도록 훌륭하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인생을 결단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게 더 좋겠죠. (Life is brief, and then you die, and we've all chosen to do this with our lives. So it better be damn good. It better be worth it.)'라고 말했는데 우리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한번 해보지 않으면 늙은이가 되어 후회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런 꿈에 대한 명언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유학하는 캠퍼스 아시아 친구들도 상당히 동감한다. 얼마 전에 나는 캠퍼스 아시아 중국 친구와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는 유엔에 가입하고 싶어했다. 친구는 앞날이 막연하다고 느끼며 고민도 많이 했다. 친구는 유엔 여성 기구에서 일하는 것이

오랫동안 바랐던 꿈이기 때문에 이제 대담하게 한번 부딪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나의 친구는 열심히 한국어와 일본어를 배우면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친구에게 공부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다. 그런 나에게 친구는 노력을 해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쉽게 포기할 해버리는 것은 허무하다고 충고해 주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통해서 모두들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 있다. 캠퍼스 아시아에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업에 맞지않아서 탈퇴하고 다시 다른 것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다 자신만의 길을 간다.



한자에 대한 특강

자신의 발견 외에 캠퍼스 아시아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동아시아에 대한 인문지식이다. 나는 어릴때 부터 주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교육을 공부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인문학수업을 받다보니 세 나라 사이에 재미있는 점이 많이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중국, 한국, 일본은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하고 다 불교와 유교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면서도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다. 나는 이런 차이점이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동아시아에 대한 인문 지식을 스스로 공부하고 있다.

지난 두 학기에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인문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문화와 예술지식을 알게 되었다. 일본에 간 첫번째 학기에 우리는 일본의 리쓰메칸대학에서 일본 우키요에에 대한 수업을 받았다. 이 수업은 나에게 깊은 의미가 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나는 동아시아 예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나는 동아시아 예술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우키요에 수업을 통해 일본 한 시기의 예술 성과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한국 동서대학교의 한국 역사수업은 동 아시아 예술사 중의 한국예술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한국 역사 수업에서 교수님은 한국의 역사를 가르칠 뿐만아니라 시기별로 한국의 문화와 예술품을 소개하셨다. 한중일 삼국은 예로부터 서로 교류를 주고 받으며 서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동아시아 사회에 대한 수업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동아시아의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연습함으로써 자주적 사고능력을 키우고 사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런 수업의 영향으로 동아시아에 관한 책들을 읽거나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중국에서 공부할 때 매일 무미건조하게 반복하여 외우던 언어는 나의 배경지식과 연결이 되었다. 언어는 정말 신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단순히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어를 통해 다른 지식도 얻는 사람이다.



일본 문화체험

방과후 교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역사탐방이나 문화체험을 많이 하게 해주셨다. 일본의 무린암이라는 정원에서 인생은 꿈과 같다고 깊이 깨달았다. 한국의 전통의 건축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교감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교류도 나에게 많은 것을 얻게 해주었다. 한국과 일본 친구와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차이를 알고 동아시아인으로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오해나 편견을 해소할 책임을 의식하게 되었다. 캠퍼스 아시아에서 나는 좋은 친구도 사귀었다. 함께 발표를 위하여 밤을 새서 준비를 하고 또 여행도 많이 갔다. 그 과정에서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었다.

나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지원했던 것이 행운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캠퍼스 아시아가 없었다면 지금의 투지가 충만한 나도 없었을 것이다. 비록 지금의 나는 아직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여기서 많이 배우고 큰 것을 얻고 있다.

갈수록 많은 훌륭한 학생이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가입하고 있다. 대학 진학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선배와 후배로 나뉘지만 선배보다 학식이 더 뛰어난 후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항상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피가 뜨거움을 틈타 젊은 시절을 저버리지 마라.' 즉 젊은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꿈을 잡아봐라.



한·중 CAP 생의 일본생활

# “Knowledge” and “Respect”



Koga Saori 와세다대학교  
(사업단 : 고려대 - 와세다대 - 북경대)

“To be real global citizens, I believe I have to learn neighboring countries well before learning distant countries” this is a word from what I submitted for applying to Campus Asia program in Waseda University. In the future, I want to be a global citizen who can be bridge between Japan and Korea, and eventually bridge between Japan and the world. To achieve this goal, I have to gain my enough “knowledge” and respectful “honesty” towards not only in Japan but also for other countries. Personally, I love Korea from my junior high school time. At first, the reason why I love Korea was simple, I just loved the K-pop and K-dramas. However, I eventually find interest in Korea as a country. We are geographically and culturally close to each other. We have made united efforts but I feel pity for the remaining challenges in its relationships.

I was interested in Campus Asia Program since the very beginning of this project has started. I had participated in the Campus Asia Kick-off Symposium and Reception Party which

was held in the April 20<sup>th</sup>, 2017. By participating this event, I learned the aims of this program. In the symposium, one of the professors argued that “we do not hear the word cooperation between Asia”. This word woke me up. Many friends from my School of International Liberal Studies (SILS) does not have the interest in Asian countries. Therefore, most of them choose the United States or Europe for their study abroad program. When I say, I decided to study abroad in Korea, most of my friends, people around me and even the teachers ask me “Why Korea” or “Why Asian Country”. My friend who is now studying abroad at Peking University from this September said she is also often asked “Why China?” by people around her. Besides of this fact, in the Reception Party, I had opportunities to talk with several professors and students from Korea University. They all said “thank you for choosing Korea for studying abroad”. I was really happy to hear that word and became my motive for studying at Korea University.



Moreover, I had visit Hiroshima for four days this summer as a representative of Waseda University with the elected students from Korea university. The aim for this project was mourning the victims and listening to the Hibakusha's story at the atomic bombing occurred in Hiroshima, August 6, 1945. In current Japanese education, we never learned it in school but not only Japanese, but also about 20,000 Koreans were also killed in this Hiroshima's crucial bombing. This number is so high that Koreans covers approximately 10% of the total victims. At that time, Japan was colonizing Korea and many people were forced to come Japan not by their will, but died or became Hibakusha in Japan. I learned that they were treated so crucially in Japan and even after they went back to Korea. My four days in Hiroshima became so meaningful because we had not only had opportunities to hear the valuable testimony, but also had discussion time about the use of nuclear weapons, nuclear power plant and Korea-Japan relationship. We are all interested in Korea-Japan relationship so we studied lots of historical backgrounds of both Japan and Korea before we departure to Hiroshima. We thought we have enough knowledge to discuss about the argument, but Korea University students were studying from their own perspectives in Korea, and Waseda University students were studied based on the reference materials made in Japan. Hence, there were some disagreement of the argument, especially in the discussion of the comfort women. Nevertheless, none of us get

upset during and after the discussion. I believe it was possible because not only we had enough "knowledge" about the topic, but also because we "respect" for each other. After this discussion, I thought if all of the Japanese and Korean citizens, or even only the government officials have the "knowledge" and "respect" for each other like us, the conflict or misunderstanding between our countries might disappear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Waseda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has strong relationship since 1973. I am honored for receiving the opportunity for study Korea University as a representative of Waseda University for a year, with getting the scholarship from seniors of Kore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By receiving the scholarship, I was invited for the 70-years establishment party for Waseda University Korean Alumni held in Lotte Hotel this month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 had opportunities to talk with honorary seniors and Waseda's authorities including current president, Kaoru Kamata. Before I attend to this party, I did not know more than 6000 Koreans graduated Waseda University after 1987 and they are helping the juniors in Korea who want to study in Waseda University by offering scholarships. Some of the seniors said "I love Japan, let the Korea and Japan be friendly neighboring country" to me. I heard the scholarship was given to the young students who will play the important role in Korea-Japanese relations. I felt so much responsibility for committing myself in this difficult problem.

In conclusion, to get enough knowledges, I am looking forward to take more courses offered for Campus Asia in Korea University to prosper my understanding and knowledge for Korea-Japan relationship next semester. I was taking Conflict Resolution and Social Innovation in Practice  $\alpha$  and  $\beta$  class which was taught by Shukuko Koyama, who was working at United Nations as a member of Mission in DR Congo. This class was included in Campus Asia Program and started from this year in Waseda. Through this course, I have learned lots of important methods to be a global leader not only by listening to the lectures but also by thinking the problems deeply and find out the solution in practice. This class was interesting because many classes held in university is just listening to the professors' lectures, but this class had enough time for us to present the own views, thinking what we can do in practice, and the professor give us the feedback. Saying or thinking the words, I want to became a bridge between the countries or global citizen is really easy th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solution and make it happen in practice. I know this is not easy problem at all, but at the same time, I am so passionate for challenging and solving these difficult problems. I have to study more about histories, problems and what I can do to get "knowledge", by not forgetting the mind for "respect" by receiving the help from many people from many countries.

# 북경에 사는 김선생님 이야기



장려

김민지 서울교육대학교  
(사업단 : 서울교대 - 동경학예대 - 북경사범대)

‘김선생님은 대학생도 아니고 도대체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하고 왜 북경에 가려고 하시는 거죠? 현재 일이 적성에 맞지 않나요? 아니면 최근에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었던거예요?’ 내가 처음 북경에 간다는 사실을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선생님들께 알렸을 때의 그들의 반응은 이랬다. 물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인들은 나의 갑작스런 북경행(北京行)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오거나, 나의 현재 교직 생활을 걱정하고 염려하였다. 그들의 솔한 질문과 마주한 후에야 새삼 ‘초등교사’가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것이 아직은 우리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을 절감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교사가 경력 도중 해외에 나가는 경우는 보통 배우자의 해외파견근무에 따른 ‘동반휴직’ 내지는 국제학교로 발령받아 그 곳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용휴직’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배움’과 ‘연구’의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니 ‘요즘 같은’ 불경기와 실업난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시기에 나의 이러한 결정은 주변의 걱정과 의구심을 살 수밖에.

사실 나 역시 ‘안정적인’ 직장을 잠시 뒤로하고 십

년 전이나 관광차 한 번 가보았던 북경에서 일년동안 생활하며 공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다. 일차적으로는 ‘교사’라는 신분으로 내가 직장에서 맡고 있는 여러가지 업무들과, 나의 북경행에 따라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우리반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는 해외유학은 물론 해외거주 경험도 전혀 없는 내가 말도 안 통하는 그 곳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대학생들 틈에서 어떻게 보면 ‘만학도’인 내가 잘 적응하며 공부할 수 있을까 등 지극히 개인적인 ‘엄살’이 나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시절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하며 중국문화에도 관심을 가지다가 교사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어 회화를 연습하고 어학자격증을 준비해 놓았다는 점, 내가 졸업한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여타의 일반대학교처럼 학부생 때 활발하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 이 때문에 항상 해외유학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이 나의 북경유학에 대한 의지에 불을 지폈다. 무엇보다 몇 번을 고민해보아도 앞으로의 교직생활에서 나에게 이와 같은 기회가 다시 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좋은 ‘전례(前例)’가 되기를 바라며 과감하게 이번 기회를 잡았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북경은 여름의 끝자락이라

는 8월 말(未)이 무색하게 덥고, 혼란스러웠다. 대학교 또는 유학원을 통해 단체로 동반 입국하는 유학생들과는 달리 나의 경우 혼자 입국부터 거류허가비자취득, 입학수속까지 모든 절차를 혼자 처리해야했다. 입학수속과 비자취득으로 바쁜 일주일의 보낸 후 본격적인 복사대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원래대로라면 복사대의 대학원에서 나의 전공과 관련한 1년의 대학원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조금 늦더라도 전공 수업을 듣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철저히 한 후에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자는 생각으로 이번 학기는 복사대 내의 한어문화학원(汉语文化学院)에서 중국어능력을 기르기로 하였다. 복사대의 어학과정은 중국 내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평평이 나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한데 모여 함께 공부할 수 있었다.

우리반의 경우 전체 20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의 국적은 런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태국 등 8개국에 달했다. 나로서는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마련된 셈이었다.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수학한다는 것은 생각



보다 유쾌하고 흥미로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명품’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와 중국의 ‘짜퉁시장’에 가서 서툰 언어로 가격 흥정을 하고, 서로 다른 국적의 친구들 10명이 함께 노래방에 가서 뜻도 제대로 모르는 서로의 유행가를 함께 부르고, 우즈벡 출신의 무슬림 친구와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어 먹는 등, 우리는 부족한 언어로 소통하지만 그 어느때보다도 깊이 교감하고 서로를 이해하였다. 출신국과 피부색, 모국어, 나이 등은 우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정보가 될 수는 있어도 서로를 친구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전혀 장벽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 한 하남성(河南省)여행과 UCC만들기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복사대의 유학생 400여명이 함께 간 하남성 여행에서 우리는 중국의 대표적 자연유산인 운대산(云台山)에 다녀오고 태극권(太极拳)을 체험할 수 있었다. 비록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도 맞지 않았지만, 함께였기에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힘든 기색없이 즐겁게 체험하고 마음 따뜻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UCC만들기의 경우 나를 포함한 영국, 태국, 우즈벡 친구 총 4명이 참여하였다.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융합하여 리한나, 판빙빙, 배컴 등 유명인으로 분하였고, 각자가 유명인이자 서로의 ‘팬’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한 달 동안 시나리오 구성 및 대본작성, 촬영, 편집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다. 결과물이 완벽하지는 않더





라도 함께 의견을 나누며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무척 재미있고 의미미하였다.

이렇게 재미있고 다채로운 나날들을 보내는 한편, 중국어 능력 향상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물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곳에 온 본연의 목적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매일 매일 중국어 공부를 하고 학교 근처에 단골가게를 만들어 교실밖에서도 끊임없이 중국어를 사용하고 활용한 결과, 중간고사 때 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북사대의 대학원생 중에서 논문발표를 위한 연구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 또는 교육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며 나 역시 북사대 대학원의 수업방식과 연구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중국어를 보다 능동적으로 배우면서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나의 모교와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북사대의 중국학생으로만 구성된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동아리는 약 60명의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의 출신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며 대외활동을 하는 목적의 동아리였다. 처음에 내가 이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고 찾아가자 그들은 모두 의아해하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외국인이 중국학생으로만 구성된 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단순한 호기심에 가입하였다

가 꾸준히 참여하지 않고 도중에 나가지는 않을지 걱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모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나의 모습에 중국 친구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나중에는 활동 기획부터 진행까지 나의 의견을 묻고 함께 반영하여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지난 10월에 있었던 할로윈 파티 기획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교내에서 할로윈 파티를 개최하면서 중국, 대만, 홍콩 등의 특색을 소개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활동장소 선정부터 소품구입, 분장까지 함께 준비하며 중국의 대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그 중 특히 마음이 잘 통한 두 명의 중국 친구와는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최근 한국과 중국의 사회적 이슈 및 젊은이들의 생활상이나 고민 등을 공유하고 교류하였다. 두 명 중 但清이라는 이름의 친구는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할 계획이 있는 친구로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원)교육과정과 본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교환(LANGUAGE EXCHANGE)까지 함께 하게 되었다. 우리는 매일 일요일 아침 9시에 학교 남문 앞 카페에서 만나 한 시간 가량 언어교환을 하였다. 첫 30분은 우리의 한 주간의 생활을 중국어로 이야기하며 보내고 그 뒤 30분은 그녀가 일주일동안 한국어교재로 독학한 내용을 내가 점검해주고 함께 연습하며 보냈다. 그녀와 언어교환을 하며 느낀 점은 교실에서 교과서로 배운 내용과 실생활 중국어는 분명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이다. 게



다가 인터넷 용어, 요즘 중국의 청년들이 사용하는 표현 등 실제적인 중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중국어 표현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았다.

어느새 가지지 않을 것 같았던 8월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목도리와 두꺼운 패딩, 장갑 없이는 나갈 수 없이 추운 12월의 겨울이 왔다.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내 인생에서 다시 없을 소중한 추억들을 쌓은 나날들이었다. 앞으로 나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국의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중국어 능력 향상에 힘쓰는 한편, 다음 학기에 북사대의 대학원에서 영어교육과 관련된 전공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듣기 위한 준비를 하며 한 학기를 마무리하려 한다. 다음 학기에는 온전히 중국인 대학원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된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어로서 영어를 교수하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상황의 국가로 영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교육열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양국이 어떠한 교육목표와 교수방법을 활용하여 영어를 가르치는지 비교하며 그 방법론과 실재를 연구해보려 한다. 아울러 나의 이와 같은 북경유학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초·등영어교육에 작게나마 이바지하고 싶다.

# 중국 베이징에서의 문화 체험



권단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사업단 : 한국예술종합학교 - 중국전매대학교)

## 1. 지원동기

지난여름 중국 대학과 교류를 자주 하시던 지도 교수님의 제안으로 '중국전매대학교 中国传媒大学 (Communication University of China)'와의 학과 교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전매대학교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소재한 중국 최고의 방송 통신 대학으로, 중국 방송사에 해마다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내는 명문입니다. 중국전매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학교 학생들의 우수한 작품들을 본 저는 이 교류 프로그램이 학생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느껴 가까이 친구들과 함께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2. 지원절차

우선 저희는 전매대학 측의 안내에 따라 중국 CSC(중국 정부 유학생 장학금 관리 기구)의 장학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 (<http://www.csc.edu.cn/Laihua>) 해당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학 측에서 제공하는 에이전시 넘버와 여권 번호, 입학허가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저희는 기숙사비와 생활비(월 3000 위안), 왕복 항공권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외에 저희

는 3개월이란 기간 동안 중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단기 유학 비자(X2)를 발급받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에는 학교 내 한국인 유학생회의 도움으로 유학생 기숙사에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첫 날에는 기숙사 보증금을 지불 후에 입실을 하였고, 둘째 날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기숙사 사무실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선 중국 내 은행의 계좌발급을 위한 중국내 휴대전화를 개통 하고, 장학금 지정 은행인 '중국건설은행'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중국내의 정책변화로 단기 외국인 체류 자는 은행계좌 개설이 까다로웠습니다.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매대학 측에서 장학생임을 인증해주는 서류를 발급 받아야 했습니다. 중국 체류 초기에는 입학허가서와 여권, 비자가 필수 소지품들이었습니다.

이외에 학교 내에서 필수로 가입을 요구하는 여행 자보험에 가입하고, 학생증을 발급 받은 뒤, 학교 행정 사무실에서 학교 내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학생 금액 카드 등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정의 돈과 4~5장의 여권 사진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 3. 교육경험

중국 전매대학의 교류학과(애니메이션과) 에서는 중국어에 서툰 한국인 학생들을 위하여 영어와 중국어가 가능한 대학원 학생들을 1:1 멘토로 연계시켜주었습니다. 친절한 학생들의 안내에 따라 학과에서 추천하는 강의들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 강의들은 서예, 야외스케치, 조소 등 중국어가 서툰 한국의 예술학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기 위주의 수업들이었습니다. 전매대학의 커리큘럼은 한학기가 전반/후반으로 나뉘어, 학기 초에만 진행되는 수업들과 학기 말에만 진행되는 수업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 멘토 학생들과 주 1회씩 만나 중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국립 박물관이나 가까운 유적지에 가는 등 중국 문화를 체험하는 경험 또한 가졌습니다. 중국의 민속예술에 대한 수업을 듣고 종이를 잘라 중국 민속 문양을 재구성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중국국립박물관의 소장품들 / 2017.11.22



종이로 중국 민속 문양 재구성하기 체험 / 2017.11.20

또한 전매대학교 애니메이션과 교수님들을 멘토로 모시며 독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수기형식의 만화로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체험을 기록한 <나의 중국 유학 일기> / 2017.09~11

### 4. 에피소드

교류 대학인 전매대학교가 위치한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인 만큼 문화유적지와 볼거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3개월이란 시간은 베이징을 체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야간입장이 가능한 만리장성 구간인 '사마대장성'과 그 근처에 테마파크로 조성해놓은 수향마을 '고북수진'은 특히나 아름답기로 기억에 남는 관광지였습니다.





사마대장성, 고복수진 / 2017.10.29

영화를 좋아하는 저에게 <마지막 황제>의 촬영지인 자금성은 감동적인 장소였습니다. 자금성을 둘러 본 뒤 뒤편에 위치한 경산공원에서 바라본 자금성의 노을 전경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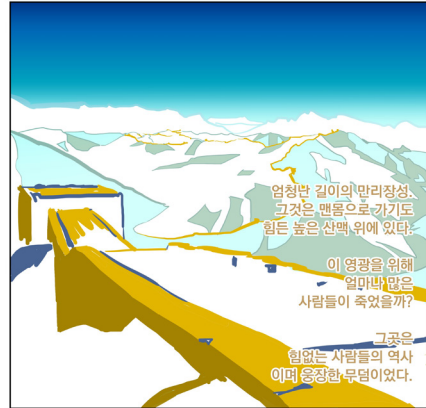
자금성, 경산공원에서 내려다본 자금성 전경 / 2017.11.13

## 5. 후배 참가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베이징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음식도 잘 맞지 않아 힘들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다른 점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에 비슷한 외형을 가졌지만 중국과 한국은 사소한 인식들부터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 생활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제가 생각 하던 '상식' 이란 것이 절대

## 12 사람 위에 세워진 벽



적인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 이었습니다. 그러자 국가가 아닌 주변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다른 중국인들의 행동도 각자의 합당한 논리가 있습니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탈피하는 것을, 책으로 보아 학습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체화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 장소와 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일본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곳에서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공부여도, 관광이어도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도전이 되고, 배움이 되고, 곧 인생이 될 것입니다.

# ‘오카야마’에서 ‘나’를 찾는다.



곽지현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사업단 : 성균관대 - 오카야마대 - 길림대)

## 1. 다시 오카야마!

3학년 1학기 복수전공으로 ‘사학과’에서 공부하고 ‘일본사’에 흥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대학원’ 진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일본 대학교의 분위기, 수업등과 같은 모습을 접할 방법을 찾던 중 문과대학 게시판에 붙여 있는 ‘Campus Asia 프로그램’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학교의 일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아닌 Campus Asia 프로그램에 눈길이 갔던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일본-중국 세 나라가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만나는 것이 흔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화, 역사, 경제, 정치 등등 수많은 분야에서 한국-일본-중국 세 나라의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때로는 경쟁심, 적대심을 갖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것처럼 앞으로 함께 할 파트너로,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각 현지에 서는 일본, 중국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누며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의 고전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하나를 넘어 협력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Campus Asia 프로그램의 목표가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과 일본의 화해와 화합’이라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의 목표와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일본어 자격증인 JLPT 1급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를 배운지 몇 개월 되지 않았던 저에게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Campus Asia 프로그램은 자격증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한 목표, 성취 등 다양한 면을 중요시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하는 것이 확정되면 가기 전까지 일본어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게 Campus Asia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일본 오카야마에서 공부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오카야마라는 곳이 저에게는 여행의 경험으로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카야마에 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낯섦’, ‘두려움’ 보다는 ‘편안함’, ‘반가움’이었습니다. 그렇게 2017년 4월 ‘인연’이라는 끈으로 다시 오카야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 2. 오카야마에서의 여러 퍼즐 조각

### 1) 첫 번째 조각, Campus Asia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혼자 오카야마대학교에 가는

것이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지내게 될까하는 사람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특히 Campus Asia 친구들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연결된 친구들인 만큼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렇게 오카야마 공항에서 중국 Campus Asia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저희들은 서로 그 아무 말도 걸지도 하지도 않은 채차를 타고, 각자의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날, 기숙사에서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에 실망하기도 했지만 처음 만난 만큼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과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다음에 만났을 때는 내가 먼저 말을 걸어 보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같이 시청에 가면서 중국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면서 ‘밥은 먹었니?’, ‘전공은 뭐야?’ 등등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같이 기숙사에서 같이 밥을 만들어 먹거나 파티를 하고, Campus Asia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함께 하면서 거리를 좁혀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변만 하던 친구들도 조금씩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중국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취직 준비라는 가벼운 이야기부터 한국·중국의 역사, 정치라는 무거운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나라를 배우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어.”라는 중국 친구의 말을 듣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국가적으로 역사적 문제, 정치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얽혀 있잖아.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우리도 중국에 대한, 일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며 그것을 사실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은 시끄러워.’ ‘일본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미안한 감정

이 없어.’ 등과 같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편견과 오해를 버린 자세, 마음가짐이 서로에 대해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2학기가 끝나고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저희는 서로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짐 보다는 다시 만남을 약속하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Campus Asia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 있는 Campus Asia 학생들의 교류 행사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오카야마대학-나고야대학-리츠메이칸대학의 한국-일본-중국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교토를 자유롭게 여행했습니다. 저희 조는 한국 학생이 1명, 일본 학생이 3명, 중국 학생 4명으로 구성된 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도 있었지만 Campus Asia와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모인 만큼 한국-일본-중국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었기에 금방 어색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계속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연애, 학업, 취직 등등 대학 생활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각 나라의 대학생들의 모습과 그 속에 있는 각 나라만의 생각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각사, 료안지, 헤이안 진구, 후시미 이나리 신사와 같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여행 다닌 만큼 자신의 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보았던 정원, 탑, 궁에 대한 특징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비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놓치거나 보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들을 알게 되었고, 일본-중국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저희는 아쉬움에 30분동안 교토역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Campus Asia라는 같은 이름으로 동질감을 느끼며 거리낌없이 친해졌기에 1박 2일이라는 기간이 더욱 빠르고 짧게만 느껴져 아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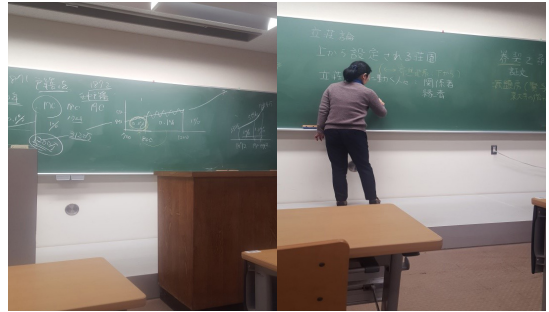


Campus Asia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나고야대학교, 리츠메이칸대학교의 일본, 중국 학생들

## 2) 두 번째 조각, 수업

일본의 대학교에 공부하러 온 만큼 일본 역사에 관한 전공수업은 꼭 듣고 싶었습니다. 1·2학기에는 동남아시아사, 일본 근세사, 문화교류사를 들었고 3·4학기에는 일본 고대사, 일본 중세사, 일본 근대사, 서양사를 듣고 있습니다. 일본어 실력이 부족했던 저에게 일본어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거의 초등학생이 대학생의 수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좌절과 '한국에서 더 열심히 공부할걸...'이라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좌절과 후회는 더욱 자신감 하락으로만 이어질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예습을 했습니다. 일본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수업이 끝나고 그 날 수업에 대한 감상문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바로 쓰려면 수업에 대한 기본 바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녹음을 통해 복습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고,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도 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녹음을 해서 천천히 듣거나, 일본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을 조금씩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책을 읽고, 하나의 레포트를 완성하고, 하나의 시험을 끝냈을 때의 성취감은 컸습니다. 이러한 학업에 대

한 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그 사건들을 사실처럼 생각하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사 수업들을 들으면서 일본 고대의 남자와 여자의 수명 피라미드에서 여자의 수명은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왜 여자의 수명은 신뢰하지 못할까?'와 같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하게 지나갔던 사실들에 대해 질문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고대사 수업

일본 중세사 수업

## 3) 세 번째 조각, 부활동(部活)

일본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활동으로 '부활동(部活)'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아리'라는 하나의 개념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부활동(部活)'과 '동아리(サークル)'라는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부활동(部活)'은 일주일에 4번 정도 모이는 참가가 의무적인 모임으로, 책임감이 요구되는 무거운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동아리(サークル)'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모이는 참가가 자유로운 모임으로, '부활동(部活)'에 비해서 가벼운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동(部活)'을 하고 싶었던 이유에 평소에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고, 일본 대학생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

장 큰 이유는 ‘왜 일본에서는 무엇보다 부활동(部活)을 열심히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답을 ‘댄스부’에서 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얻었습니다.

학업, 취직, 아르바이트만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안무를 직접 창작하고, 수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여러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 대학생들에게는 ‘부활동(部活)’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담은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단장에게 ‘이렇게 활동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라고 물어 봤습니다. 그 단장은 ‘전혀.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재미있을 뿐이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고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으며 부활동(部活)을 열심히 하는지 알게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많은 대학생들이 너무 해야 할 일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부러워졌습니다.

또한 부활동(部活)을 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4번,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단 한 번도 다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부분이 끝나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친구들의 부분을 보면서 피드백 해주며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색함과 부끄러움을 탔던 저도 서서히 일본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친구들과 하나가 되어서 학교 축제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활동(部活)은 전체의 협동성을 바탕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왜 부활동(部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연습하는 사진

학교축제에서 공연을 하는 사진

### 3. 안녕 오카야마!

이처럼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본 오카야마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변한 것은 ‘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한국-일본-중국의 관계에 대한 생각과 시각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 실력과 학업에 대한 깊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그것에 대한 시간 투자, 노력 등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또한 경쟁에 치여, 결과에 치여서 잊고 지냈던 단체가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서 협동하고 단결하는 서로를 위한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어느 덧, 2017년이 끝나가고 2018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카야마에서 봄을 만끽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을 맞이하며 저의 오카야마에서의 생활도 서서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카야마에서의 여러 추억들을 여러 조각의 퍼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오카야마에서의 하나, 하나의 추억들이 지금의 ‘나’를 변화시키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다시금 한번 되돌아보다.



배주현 부산대학교 건축대학  
(사업단 : 부산대 - 동제대 - 큐슈대)

## 나를 되돌아 볼 기회가 오다.

중국 동제대에서 주최로 열린 'Hangzhou Eco Community Urban Design Workshop'을 CAMPUS Asia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동제대 건축학과와 명성은 이미 중국에서 탑5위 안에 들 정도로 해외 유학에 관심 있는 건축학과 학생이면 한번쯤 들어 봤을 거다. 처음 International workshop(Hangzhou Eco Community Urban Design Workshop 을 줄여 명칭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설계에 대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가는 곳으로,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5년 정도의 대학생활을 하면서 한번쯤은 해외로 나가서 학술활동을 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진 이 시점에 International workshop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것도 같은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참석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한다는 것은 묘한 쾌감마저 느끼게 되는 일이었다.

## 어색한 첫만남 속, 설렘 반 두려움 반.

우리는 17.07.22~17.08.02일까지 열리는 International workshop 참가를 위해 부산 - 상해 비행을 이용하여 상해로 향했다. International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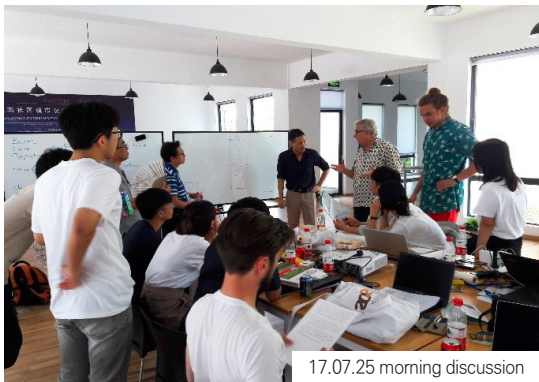


17.07.23 Opening party

장소는 항저우시 였지만, 상해 동제대에서 먼저 오픈 파티 후 다같이 항저우로 이동하였다. 영어를 잘 못하는 고민과 빨리 워크샵을 해보고 싶은 열정이 가득찬 나로써는 도착하기 전 설렘 반 걱정 반이었다.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오픈 파티 때 늦게 도착하였지만, 어색하기만 할 것만 같았던 그곳에 분위기가 사뭇 부드러웠다. International workshop으로써 다양한 국가와 학교에서 참여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서로를 소개하고 전시된 작품에서 토론하는 모습이 첫인상이 깊게 다가왔다. 지속적으로 걱정되었던 것이 다소 진정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첫만남으로 타지에서 첫 밤이 맞이하며 다음날 아침 일찍 항저우시로 향했다. 항저우는 동방전 문록 저자 마르코 폴로가 말하길 세계 3대 미적도시 중 하나라고 칭했다. 그런데 왜 항저우시에서 워크샵을 진

행할까? 그것은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2 Hongzhou Asian Games을 맞아 선수촌 구성을 주제로 7개의 테마, 9개의 그룹이 구성되었고, 한 그룹당 튜터2명 + 학생 6명으로 구성되었다. 'International workshop은 계획설계에서 끝이 아닌 실제로 지어질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다.'는 중국 튜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1일간 거의 논스톱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마지막 날 발표를 통해 서로의 작업결과를 공유하는, 매우 밀도 높은 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워크샵이 시작되면서 오픈 파티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들 진지한 자세로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한 테마의 2개의 그룹이 계획안을 만들어낸다. 워크샵 작업과정 초반은 2개의 그룹이 같이 진행하였고 항저우의 역사적 의미에서부터 대지 답사를 거쳐, '기존 항저우 도시계획'을 분석까지 천천히 풀어나가고자 했다.



17.07.25 morning discussion

### 건축만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열정을 배우다.

빠르게 진행되는 중에도 수시로 작업과정에 대해 발표를 하면서 토론과 피드백을 거쳐가야 한다. 영어로 말을 잘 못하는 불안한 나로써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발표문을 계속 고민하고 정리해야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이게 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

가 있었고 또 즐거움을 느낀다. 작업 프로세스는 기존 건축계획적으로 접근법이 아닌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해서 프로세스가 미묘하게 달라 디자인 대해 꽤 오래 더 고민해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함께 묶어낼 수 있을 것인가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다른 학교 친구들의 작업을 볼 수 있는 점도 매우 매력적이었다. 각자가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색다른 생각을 듣는 재미도 있었고 다양한 시선의 건축적 상상력을 스케치와 다이어그램 등 건축적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모습이 남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매일 오전시간에는 튜터로 오신 분들의 강연 듣는다. 튜터의 작품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의 집중하면서 보았다. 부산, 뉴욕, 시안, 런던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된 작품으로 각 도시의 지역성을 잘 풀어내는 모습이 매우 멋져 보였다. 자극 받은 난, 자신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또한 나에게 맞는 건축관을 쌓고 단지 현실에 안주하여 설계를 하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의 라이벌이 되고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건축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시금 다짐하게 된다.

3일 작업 후 중간마감 및 발표가 시작되었다. 각 그룹마다 다양한 작품들이 기대주면서 동시에 실망감을 안겨주는 작품들도 있었다. 우리 그룹 경우 공원과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공원과 함께 계획하는 것인데, 3가지의 계획안을 제시하였고 그 중 가장 반응이 가장 좋은 것을 발전시켜 최종작품으로 제출할 전략으로 발표를 했다. 하지만 우리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룹이 발표만 하고 튜터들 코멘트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중간발표날은 일찍 마쳐서 다들 들뜬 마음으로 항저우 다운타운으로 나가 여유를 즐겼다.



17.07.28 Interim presentation

### 3대 미적도시, 향저우를 느끼다.

향저우는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며 예전의 풍취가 많이 사라졌다고 한탄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가보니 그곳은 내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었다. 동방전문록 마르코폴로가 말하길 향저우는 동양 3대 미적도시, 물의도시로서 도시전체가 아름답게 구성되어있고, 여름을 제외한 기후대도 온화하여 사람들에게게서 여유가 느껴졌다. 아름다운 광경을 담아내고 있는 큰 호수 서호와 향저우의 곳곳에 걸어 다니며 문득문득 오래 전부터 간직하고 전해온 전통적인 도시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한국의 부산에는 초량거리, 첫 해외여행지였던 일본의 교토가 각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거리이면, 중국의 향저우는 청하방이 있다. 한국의 현대와 근대가 조화를 이루며 시대의 시간성을 보여주는 부산, 고대부터 천 년의 역사를 가진 옛 수도이며, 역사적 공간과 현대적인 공간이 어우러진 교토, 서호와 함께 옛 아름다운 남송의 수도 거리 모습을 복원한 향저우, 이 세 거리는 나라의 문화만큼 상황이 무척 다르고 각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몇 해 전 건축계에서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중국의 처음으로 받은 건축가가 있다. 건축가 왕슈, 이는 향저우에서 주로 활동하였고, 덕분에 오래된 도시와 그가 설계한 현대적이면서 토속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색다른 향저우 풍경을 볼 수 있다.

###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나 자신의 목표를 다짐하다.



17.08.01 final presentation

다시금 바쁘게 3일이 흘러서 최종발표날이 다가왔다. 11일의 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각각의 결과물은 어느 하나도 같은 것 없이 매우 독창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작업은 단연 압도적으로 '달랐다'. 그 이유는 다른 그룹은 너무 현실적으로 디자인을 풀어나갔다면, 우리 그룹은 컨셉적으로 디자인을 풀어나갔다. 향저우의 도시밀도와 공원의 밀도를 이분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파장이 선수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작품이 완성되었다. 나는 디자인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컨셉보다는 완성도에 치중하는 스타일이라 컨셉적 작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어느 정도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그 '답'은 이번 작업이 나의 건축직업으로부터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또 몇 십년을 더 고민해야 할 진행형의 과정 중 하나일 것이다.

상해와 향저우에서 느낀 중국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흐름, 이질적인 스케일의 도시 공간을 눈에 담고 그리고 짧지만 강렬했던 'Hangzhou Eco Community Urban Design Workshop'의 경험은 도시계획과 디자인, 건축과 문화에 대한 직업적 고민뿐 아니라 하얀색 티, 하얀색 모자, 하얀색 명찰, 무엇보다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시간의 추억을 남겨 주었다. 작은 눈들이 쌓여서 하얀 풍경으로 온통 뒤덮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작은 생각과 결과들이 잘 자라나기를 바라며 자랑스러운 나를 꼭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내가 저학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해외프로그램을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Hangzhou Eco Community Urban Design Workshop'을 더불어 CAMPUS Asia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로 나갈 기회가 더 많이 생겨서 매우 만족스러우며, 더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마지막 학기생활을 맞이한다.



17.08.02 Waitan in central Shanghai



# 2017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및 UCC 수상집

Collection of CAMPUS Asia Korea-Japan-China Essay and UCC Contest Prize Winners 2017

## UCC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 Why are you hesitating?



이승재, 이송이, 이현국 성균관대학교 수자원전문대학원  
(사업단: 성균관대 - 나가사키대 - 산동대)



## 작품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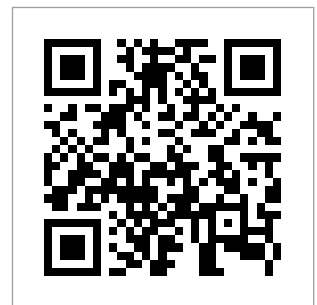
캠퍼스 아시아 프로젝트를 고려중인 당신,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이 비디오는 캠퍼스아시아를 고려중인 지원자들에게 고민을 덜어주는것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에 실제로 팀원들이 걱정하던 부분을 선정하여, 향후 프로젝트에서 신청자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동안, 저희가 겪었던 실제 경험과 현지에서 느꼈던 장점들을 재치 있는 상황으로 UCC에 담아, 향후 지원자들의고민을 덜고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언어문제에 대한 부분은 실제 나가사키 대학에서 일본어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던 교육학부 학생들이 직접 출연한 것이며, 처음과는 달리 일본어 실력이 향상되어, 현지의 학생들과의 교류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학업에 대한 궁금증도 실제 수업을 영상에 담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중국간의 교류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서 학업에 지장이 없으며, 관심 연구분야에 정진할 수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캠퍼스 아시아 프로젝트를 고려하고있을 경우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 경제적인 지원과 장점을 부각하였고, 외국 현지생활중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을 추려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https://youtu.be/iKQgNic5GkQ>

# Graceful Life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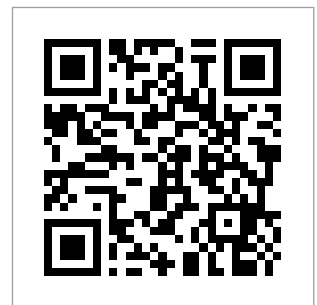
Mitsunaga Kaito, Wu Xueyuan, Zhou Yarong, Igawa Susumu  
나가사키대학교 / 산동대학교  
(사업단 : 성균관대 - 나가사키대 - 산동대)



## 작품 설명

일본 나가사키대학교와 중국 산둥대학에서 성균관대로 파견된 학생들이 함께 성균관대와 한국생활에서 느낀점을 이야기함

학생들 모두 각자 배치된 연구실생활을 통하여 해당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들에 참여하며 미래의 학업방향들을 세우게 된 점을 진솔하게 이야기함



<https://youtu.be/mKppmcltCfs>

See you, Korea



Li Wanjing 고베대학교  
(사업단 : 고려대 - 고베대 - 푸단대)





## 작품 설명

As a student from Kobe university in Japan, this summer, I took part in the CAMPUS Asia summer program. I got a chance to learn Korean through language course by Korea university and joined summer workshop with friendly teachers and students who come from Korea university and Fudan university. Because of this program I felt an actual feeling about Korea which is an excellent memory for me. So, I want to introduce CAMPUS Asia program to everyone by using this small video. I want everyone can come here to feel a real Korea with me together. And I already apply for the Campus Asia winter program again. See you, Korea.



<https://youtu.be/OhrQ2W3hfpU>

## 2017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및 UCC 수상집

[Collection of CAMPUS Asia Korea-Japan-China Essay and UCC Contest Prize Winners 2017]

---

| 인 쇄 | 2018년 2월

| 발 행 | 2018년 2월

|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동 23층

TEL. 02) 6919-3800

| 인쇄처 | 경성문화사 TEL. 02) 786-2999

| ISBN | 979-11-6004-299-3 93370

| 자료번호 | RM 2018-2-800

---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전재할 수 없습니다.